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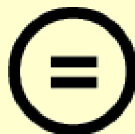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 석사학위논문

이슬람 국제체제의 역사적 탐구를
통한 걸프위기의 재구성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김 가 희

이슬람 국제체제의 역사적 탐구를 통한 걸프위기의 재구성

지도교수 신 범 식

이 논문을 외교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김 가 희

김가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월

위 원 장	<u>최 정 운</u>	(인)
부 위 원 장	<u>전 재 성</u>	(인)
위 원	<u>신 범 식</u>	(인)

국문 초록

걸프전은 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지역적 차원에서 본격적인 근대 국제정치의 시대로 변화하게 된 역사적 분기점으로서 평가받아왔다. 이전까지 주로 범-아랍주의 혹은 범-이슬람주의에 의해 규정되던 지역질서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이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군사적 응징에 의해 와해되었으며, 이 때부터 아랍 국가들은 비로소 개별적 정체성과 이익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안에서 미국의 파병 결정 이전까지 전개되었던 아랍 솔루션의 노력, 경제적·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군 합류를 거부했던 요르단의 결정 등은 별다른 중요성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반 이라크 전선에 섰던 다른 국가들의 선택 역시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가 근본적으로는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와 그러한 국가들로 이루어진 주권국가체제를 당연의 전제로 하는 서구 중심적 이론의 가정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역에는 근대 국제질서와는 다른 이슬람 질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며, 근대국제체제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을 뿐이다. 따라서 중동의 근대체제는 여전히 과거의 이슬람 질서의 유산 속에서 작동하였으며, 내부의 국가행위자들 역시 전형적인 근대 국가의 행동과는 다른 양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프위기 당시의 지역정치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간과된 채 설명되었던 바, 사건의 지역적 의미와 맥락, 개별 국가들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진다. 첫째, 근대적 국제체제와는 다른 중동 지역체제의 특성을 역사적 연속성과 단절 속에서 고찰해보고, 둘째, 이를 통해 걸프위기의 지역정치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이고자

했다.

624년 움마의 탄생 이후, 이슬람 세계는 정치 단위의 존재양식, 국제 공간의 표상 및 관념, 단위들 간의 행위 규범 등에 있어 다른 권역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국제체제를 오랫동안 영위해왔다. 그러나 이는 18,19 세기를 거치며 점차 해체되었으며 유럽으로부터 강제된 근대 국제체제가 자리 잡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중동의 근대 국가들은 불완전한 주권을 소유한 영토국가 상태에 머물렀으며, 이들 간의 관계 역시 근대 주권 규범에 따라 형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때, 아랍주의와 이슬람은 개별 국가의 정체성 차원을 넘어 국가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으로 작동하였다. 아랍 국가들은 아랍과 이슬람의 일부로서 행동하도록 제약받았을 뿐 아니라, 개별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역시 아랍-이슬람의 규범 하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쳐야했던 것이다. 걸프 위기 당시 3개국의 외교정책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국적군에 합류 혹은 거부했던 이들의 선택은 아랍-이슬람 규범 안에서 이라크의 행위를 인식하고,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재구성한 결과물이었다.

주요어 : 걸프위기, 중동 국제정치, 지역 국제체제, 이슬람 질서, 아랍-이슬람 규범

학 번 : 2014-20163

목 차

I .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 검토	5
3. 연구의 방법	11
4. 연구의 구성	13
II . 근대 이전 이슬람 질서의 특성과 변환	15
1. 정치단위의 변천	15
1) 이슬람 움마	16
2) 군사-시혜 국가(military-patronage state)	17
3) 이슬람 제국	19
2. 국가 간 관계 설정과 국제의 인식	22
1) 이슬람 세계의 이분법적 국제관념	22
2) 이슬람 세계의 분열	23
3) 이슬람 제국 시대의 국제 공간	24
(1) 전쟁 영역: 유럽과의 관계	25
(2) 이슬람 영역	26
3. 샤리아와 지하드	29
III . 오스만 제국의 해체와 근대 이행	32

1. 오스만 구체제의 종말	33
1) 쿠크 카이나르자 조약과 그리스 독립전쟁	33
2) 국가 주도형 개혁과 내부적 갈등의 심화	34
3) 발칸의 독립운동과 영토상실	36
4) 근대국제체제로의 편입	37
2. 제국의 쇠퇴와 아랍지역	39
1) 구질서의 붕괴와 이슬람 공동체	39
2) 아랍민족으로서의 자기인식	41
 IV. 근대 중동의 지역질서	44
1. 중동 지역체제의 구조적 특성	45
1) 불완전한 주권 단위: 근대적 영토 국가	47
2) 중동 지역 체제의 작동	50
2. 규범과 정체성, 그리고 외교정책결정	52
1) 아랍-이슬람 규범과 외교정책결정	52
2) 다층적 정체성과 외교정책결정	53
 V. 걸프위기의 지역정치	57
1. 걸프위기의 대두와 아랍 세계의 반응	58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58
2) 아랍 솔루션의 모색과 좌절	62
3) 걸프위기의 지역적 의미	66
2. 아랍 솔루션 이후 주요 국가들의 선택	69
1) 사우디아라비아	70
(1) 전통적 외교노선과 복합적 위협인식	70
(2) 아랍-이슬람 규범의 재해석을 통한 외교정책결정	72
2) 이집트	75

(1) 걸프위기 상황에 대한 전략적 계산	75
(2) 아랍-이슬람 규범 수호를 위한 다국적군 파병	76
3) 요르단	78
(1) 요르단을 둘러싼 다층적 위협	79
(2) 주권 규범과 아랍-이슬람 규범의 조응	81
3. 소결	85
 VI. 결론	 87
 참고문헌	 91

I. 서론

1. 문제제기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된 걸프전은 냉전질서가 막을 내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소련의 붕괴로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걸프위기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걸프전과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쏟아졌는데,¹⁾ 걸프전은 비단 지구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이었다. 바넷(Michael N. Barnett)에 따르면, 이 전쟁은 첫째, 그 때까지 지역을 규정해온 아랍 대 이스라엘의 구도를 넘어 아랍 국가들 간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과 둘째, 중동 정치가 범-아랍주의(Pan-Arabism)의 시대에서 근대 국제정치의 시대로 변화했던 계기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²⁾ 이전까지 빈번하게 발생했던 레토릭 경쟁이나 위협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 위협에 직면하여 반 이라크 진영의 아랍 국가들은 아랍 연대의식에서 벗어나 현실주의적 자구(self-help)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아랍 국가들끼리의 외교적 해결

1) Ismael Y. Tareq and Jacqueline S. Ismael, *The Gulf War and the new world order: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4); Lawrence Freedman and Efraim Karsh, *The Gulf conflict, 1990-1991: Diplomacy and war in the new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Alex Danchev and Dan Keohane,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he Gulf Conflict, 1990-1991*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2) Michael N. Barnett, "Regional Security after the Gulf Wa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1, No. 4 (Winter, 1996a), pp. 597-618; Michael N. Barnett, "Identity and Alliances in the Middle East,"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b), pp. 400-447.

(Arab solution)이 아닌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갈등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³⁾

그러나 이러한 논의 안에서 사건이 발생한 1990년 8월 2일부터 8월 10일 아랍 연맹(Arab League)이 이라크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까지 아랍 국가들이 역내에서의 문제 해결을 모색하였으며 외부세력, 특히 미국의 개입에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 또 결과적으로 일부 아랍 국가들을 포함하는 다국적군이 결성되는데 부시(George H. W. Bush)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주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아랍 국가들의 반 이라크 전선 형성은 합리적 선택에 따른 외교정책결정에 다른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및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군사적·경제적 위협의 실재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군에 합류하기를 거부한 요르단의 외교정책결정은 전통적인 세력균형론이나 위협균형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이례(異例)로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간과되었으며, 또 기존의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면, 당시 지역 국가들의 외교정책결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중동의 정치적 현실과 국제정치이론의 부정합성은 흔히 ‘미성숙한 무정부상태’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지역의 근대 국가체제는 단위 차원에서나 단위들 간의 상호작용 면에서나 여전히 근대의 공고화 혹은 학습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걸프위기에서뿐만 아니라 근래의 지역 정치 역학 속에서도 국제정치게임의 규칙

3) Raymond A. Hinnebusch and Anoushiravan Ehteshami, *The foreign policies of Middle East states* (Boulder, Colo. : Lynne Rienner Publishers, 2002), pp. 48-57.

4) Matteo Legrenzi, "New dimensions of security and regionalism in the Middle Ea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a Changing Middle East*, *POMEPS STUDIES*, Vol. 16, (September 17, 2015), pp. 28.

5) Hinnebusch and Ehteshami(2002); Muhammad Ayoob, *The third world security predicament: State making, regional conflict,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Boulder : Lynne rienner publishers, 1995).

이 대단한 탄력성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체제가 근대 국제체제를 향해 ‘발전’해 나간다고보다, 단순 근대 국제체제라고 볼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노블(Paul Noble)에 따르면, 중동 지역은 ‘당구공들이 이루는 세계’라기보다, “다공성 있는 막으로 나누어진, 상호 연결된 유기체들의 집합(set of interconnected organisms separated only by porous membranes)”에 가깝다.⁶⁾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개별 국가의 정체성, 이익, 외교정책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길항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 국가들의 체제’를 당연의 전제로 하는 근대국제정치이론만으로는 중동의 국제정치를 온전히 그려내기 어려운 바, 이러한 독특한 시스템의 특성을 조망하는 동시에 그러한 특수성을 배태하게 한 역사적 기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구가 고유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근대국제체제를 형성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동의 근대 이행 역시 고유의 역사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동의 국제체제가 나름의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된 기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근대 이후 지역체제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걸프 위기 당시의 지역정치 역학을 재구성해 이해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질서가 18,19세기 유럽 제국주의의 팽창으로 근본적인 변환을 겪었으며, 이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의 질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공유한다. 중동 지역은 다른 대부분의 비서구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팽창에 의해 기존의 정치사회적 구조와 질서가 해체되는 폭력적 경험을 통해 근대 주권국가체제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근대 이행 이후 모든 지역이 중동과 같은 만성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예로 동아시아 지역 역시 급속한 체제변경에 직면했으나, 과거의 천하질서 구도(중심-주변의 위계적

6) Paul Noble, "The Arab system: pressures,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in Bahgat Korany and Ali E. Hillal Dessouki (eds.), *The foreign policies of Arab States: The challenge of change*. (Boulder : Westview Press, 1991), pp. 57.

배열, 주변의 평등한 배열)의 경험 속에서 근대국제체제의 원리를 비교적 순조롭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⁷⁾ 따라서 유사한 근대 이행의 경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동지역에서 근대의 게임이 더 순조롭게 작동하기 어려웠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근대 이행 이전의 질서를 고찰하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7세기에 이슬람 세계가 형성된 이후로 20세기 초 오스만 제국이 해체될 때까지 이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가 등장하여 지역 안팎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거쳤으며, 이에 따라 단위의 작동방식, 단위 간의 관계 규범 등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세계는 다른 권역, 특히 유럽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국제체제를 유지하며, 나름의 연속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서서히 진행된 오스만 제국의 해체, 흔히 말해 동방문제(Eastern Question)를 거치면서 과거의 연속성이 파괴되었으며, 이러한 유산 속에서 근대국제체제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국제체제는 행위자의 속성 및 정체성, 행위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등에서 전형적인 근대국제체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다시 개별 국가의 이익과 외교정책의 구성에 영향을 미쳐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조 속에서 구성되는 국가 행위자의 다층적 정체성과 행위규범’이라는 견지에서 걸프위기 시 주요 아랍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아랍 국가들은 사건 발생 직후 이라크에 대한 즉각적인 비난을 자제한 채, 지역 차원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이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비타협적인 태도, 미국의 적극적인 설득 등에 의해 아랍 솔루션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이후 아랍 국가들은 분열되었다.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요르단은 사건 초기부터 외교적 대화를 주도해왔으나, 미국의 개입을 둘러싸고 각각의 대응방식에 편차를 보이게 되었다. 요르단이 대화를 통한 위기 해소를 고수했던 반면, 사우디와 이집트는 입장을 선회하여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찬성하고, 다국

7) 장인성,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을 찾아서-방법론적 성찰,” 『세계정치』, Vol. 10 (2008), pp. 7-34.

적군에 자국의 군대를 파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차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상정하는 바와 같이 아랍 전체의 이익 대 개별 국가의 이익간의 대비만으로 온전히 설명되기 어렵다. 더불어 반 이라크 전선에선 사우디와 이집트의 선택은 각각의 전략적 고려와 이익에 따른 것이었을지라도, 이들은 각자의 정체성과 조응하는 지역 차원의 행위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지역 차원에서 걸프 위기를 바라보는 큰 틀 속에서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의 외교정책 간 편차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전술했던 것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역내 국가들이 서방세계와 연합하여 같은 아랍국가인 이라크에 대항했다는 사실에 기인해, 주로 범 아랍주의의 종언 내지는 지역 내 무정부상태 규범의 정립에 주목하여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규범과 정체성의 ‘변화’나 ‘발전’이 아니라, ‘공존’과 ‘경합’의 차원에서 걸프위기에서의 지역정치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사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범 아랍주의’와 ‘이슬람’의 정체성은 중동정치를 설명하는 핵심변수로 활용되어 왔으며, 걸프위기 당시 아랍 국가들의 행태 역시 이러한 정체성의 매트릭스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여전히 이러한 정체성이 왜 자국의 정체성과 대등하게, 혹은 더 강하게 힘을 발휘하는지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 개체가 가지는 다수의 정체성이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조와 제도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보다 더 큰 지속력과 구속력을 가진다는 사실은 그러한 정체성이 뿌리내고 있는 구조의 역사와 논리에 대한 탐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⁸⁾

8) 전재성, “[서평]국가안보와 문화: 국제정치에 있어서 규범과 정체성,” *전략연구*, (1997), pp. 276-278.

2. 기존 연구 검토

국제적 전쟁으로서 걸프전은 새로운 질서의 등장을 알린 최초의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던 반면, 지역적 위기로서 걸프전의 의미는 주로 역내 무정부규범의 확립으로 정의⁹⁾되었으며, 과거의 범아랍주의는 이제 일종의 잔류효과로만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평가¹⁰⁾가 주를 이루어 왔다. 당시 다국적군의 결성은 근대 국가 건설 이후 최초로 아랍 국가들이 같은 아랍 국가에 대항해 서방의 군대와 연합한 사례로서 이러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 상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 틀 안에서 아랍 국가들끼리 외교적 해결이 시도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국적군의 결성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그 전초단계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캠벨(David Campbell)의 연구¹¹⁾는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기존의 걸프전 관련 담론을 지배해 온 흑백의 서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에서 6가지 대항서사(counternarratives)를 제시하였으며, 그 중 하나의 예로 아랍 솔루션의 과정을 서술한 바 있다. 비록 연구의 범위나 맥락은 다르지만 캠벨의 연구는 서구 시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선과 악 혹은 흑과 백의 구도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종류의 서사가 걸프전의 또 다른 면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실 아랍 국가들 간의 공동의 노력은 8월 2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 전쟁 기간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테오도르 드레이퍼(Theodore H. Draper) 역시 지적하고 있듯이,¹²⁾

9) Barnett, 1996a, 1996b

10) Hinnebusch and Ehteshami, 2002, pp. 48; Sayigh, Yezid "The Gulf crisis: why the Arab regional order failed." *International Affairs*, Vol. 67, No. 3 (July 1991).

11) David Campbell, *Politics without principle: sovereignty, ethics, and the narratives of the Gulf War*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1993).

12) Theodore H. Draper, "The Gulf War Reconsidered,"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January 16, 1992, <http://www.nybooks.com/articles/1992/01/16/the-gulf-war-reconsidered-2>

걸프전은 역내 국가들에게 있어 선악구도를 벗어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던 바, 아랍 솔루션의 모색과 좌절의 과정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걸프전의 의미는 다국적 군에 합류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결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의미하다. 이들의 외교정책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이나, 사실상 지역 차원의 아랍-이슬람 규범의 틀에서 재해석, 정당화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한편 당시 요르단의 외교정책은 기존의 이론으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로 보인다. 아랍 솔루션이 실패하고 다른 아랍 국가들이 다국적 군에 합류했을 때에도, 요르단은 여러 위협과 손실을 감수하면서 아랍 연대주의를 고수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요르단은 주로 전반적인 반 이라크 분위기에서 이탈한 일종의 예외사례(outlier)로 취급되어 왔다. 왜냐하면 우선 당시 요르단의 행태는 전통적인 동맹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세력균형론이나 위협균형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요르단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데다가 걸프 왕정 국가들과 역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반면 이라크는 영토, 인구, 군사력 등 하드파워의 측면에서 이미 손꼽히는 지역의 강대국이었으며, 쿠웨이트에 대한 침략 행위를 고려했을 때, 팽창주의적 의도 역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세력균형론의 측면에서 요르단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할 만한 이유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트(Stephen M. Walt)는 세력균형론을 발전시켜, 국가들은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이루고자 하며, 이 때, 위협의 수준은 인구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힘의 크기, 지리적 인접성, 공세적 능력, 인지된 의도 등이 결정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한 동맹의 형성에 있어 비슷한 내적 구조, 즉 이데올로기는 동맹 형성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중동 지역의 국가들 역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이익과 전략에 따라 움직일 뿐, 아랍 정체성은 이익 확보를 위한 도구이거나,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보았다.¹³⁾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걸

ㄴ (검색일: 2016년 11월 26일)

프 위기 상황에서 이라크는 요르단에게 위협으로 비춰질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라크는 요르단의 시각에서 힘의 크기, 지리적 인접성, 공세적 능력의 세 가지 요건은 충족하고 있었다. 또 인지된 의도와 관련하여 이라크가 요르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던 것은 요르단에게 위협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이스라엘과 이라크 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지리적 위치 상 그것은 바로 요르단의 영토 혹은 영공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 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비드(Steven David)의 전(全)균형(omnibalancing)이론을 원용, 요르단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우선 전(全)균형론에 따르면, 3세계 국가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을 국가가 아닌 국가 지도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3세계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외부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반정부 세력들에 의한 내부적 위협에도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이들에게는 국가의 생존과 이익보다 정권의 유지가 더 중요한 목표인 바, 내부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외부세력과의 동맹체결을 포함한 외교정책을 펴게 된다.¹³⁾ Harknett and VanDenBerg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요르단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자 했는데,¹⁴⁾ 당시 요르단 내부에서는 반미, 친-이라크 정서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다국적군에 합류하는 것은 대중들의 분노를 야기, 결국 요르단 하심 왕가를 전복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러한 위험 때문에 요르단은 사실상 친-이라크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데이비드의 전(全)균형론과는 다르게, 요르단이 국내 세력의 위협에 편승했다고 보는 것에 가깝다. 브랜드(Laurie A. Brand)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쳤는데, 요

13)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 22-26.

14) Steven R. David, "Explaining Third World Alignment," *World Politics*, Vol. 43, No. 2 (January 1991).

15) Richard J. Harknett and Jeffrey A. VanDenBerg, "Alignment theory and interrelated threats: Jordan and the Persian Gulf crisis," *Security Studies*, Vol. 6, No. 3 (1997), pp. 112-153.

르단 국민들의 격렬한 분노와 저항은 왕정을 무너뜨리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심각한 사회 불안정을 초래했을 것이기 때문에, 후세인 1세(Amir Abdullah Hussein I)는 여기에 굴복했다는 것이다.¹⁶⁾

그러나 본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국내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후세인 1세는 다소 중립적인 자세에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대중적 차원의 친 이라크 시위가 격화되었을 때도 완전히 친 이라크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요르단 국내에서 사담 후세인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이라크를 지지하는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심 왕가에 대한 분노나 불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곧 국내적 '위협'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또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요르단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 역시 존재하는데 그 중 리드(Stanley Reed)는 요르단의 결정은 걸프 위기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경제적 상호의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요르단은 상품 수출을 위한 시장과 값싼 석유의 공급지로서 이라크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라크의 경제적 파탄은 요르단에게도 같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치적 입장과 물질적 이익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결정의 상관관계를 인정한다하더라도, 이라크에 대한 요르단의 경제적 종속성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요르단은 이라크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동시에 반 이

16) Laurie A. Brand, *Jordan's Inter-Arab Relations: The Political Economy of Alliance Maki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p. 294; Laurie A. Brand. In Search of Budget Security: Jordanian Foreign Policy," in L. Carl Brown (ed.), *Diplomacy in the Middle Eas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Regional and Outside Powers* (London: I.B. Tauris, 2003), pp. 150-153. 브랜드는 주로 지대추구론(rent seeking theory)에 기반을 둔 '예산 안보(budget security)' 개념을 통해 요르단의 외교정책을 설명해왔는데, 적어도 걸프 위기 상황에서만큼은 요르단의 외교정책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이 아닌, 국내정치적 위협의 시각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 Stanley Reed, "Jordan and the Gulf Crisis", *Foreign Affairs*, Vol. 69, No. 5, (Winter, 1990), pp. 22.

라크 전선의 많은 행위자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다국적 군 합류에도 이러한 보상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위협에 순위가 정해져 있음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위협 변수의 독립적인 인과력(cuasal power)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당시 요르단이 직면해있던 다양한 위협과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중 어떠한 위협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가 하는 ‘해석’의 문제이며, 이는 다시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위협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르단의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은 정체성과 위협, 그리고 국익의 상호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¹⁸⁾

린치(Marc Lynch)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요르단의 외교정책을 분석했는데, 그는 사회영역에서 조직되는 정체성 및 이익과 외교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포착하기 위해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 sphere)의 개념을 도입했다. 국익은 국가 행위자의 선호와 다수의 공론장(public spheres) 내에서 벌어지는 대중적 숙의(public deliberation) 간의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외교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적으로 주어진 위협 자체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해당 사건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 및 구성(framing)이라는 것이다.¹⁹⁾ 따라서 걸프위기 당시 요르단의 외교정책 역시 국제적 영역과 아랍주의 영역(Arabist arena), 요르단 국내 영역의 공론장에서 벌어진 숙의를 통해 정의된 정체성과 이익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이 린치의 주장이다.

린치의 연구는 합리주의적 시각에서 적절히 설명되지 않았던 요르단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흔히 구성주의적 연구들에서 암묵적으로 가정되는 ‘특정한 정체성을 보유한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나 정체성의 변화라는 구도를 벗어나,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면서 국익을

18) David Campbell,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2).

19) Marc Lynch, *State interests and public spheres :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Jordan's identit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pp. 1-23.

재 정의하는 역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기존의 구성주의 연구는 오히려 정체성 변수를 주변화하거나, 특정한 정체성을 ‘탈피’하여 근대 국가로서의 규범을 학습할 수 있다는 서구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린치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본 논문은 린치 역시 요르단의 국익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국경과 조응하지 않는 공론장”²⁰⁾이 중요한 역할을 미쳤음을 강조하면서도, 왜 이러한 공론장이 한 국가의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중동 지역에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국내/국제적 범주를 넘는 다른 종류의 ‘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서,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왔던 중동 국제체제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 하에서 작동하는 다수의 규범들이 각 단위의 정체성과 관념, 그리고 외교정책과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연구의 방법

간단히 말해 본 논문은 근대 이전의 정치질서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으며, 근대 이후의 중동정치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하는 역사적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중동의 역사는 사실상 이슬람 세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는 바, 중동을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이슬람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한 편의 연구에서 약 1200년에 이르는 이슬람사의 변천을 모두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서쪽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동쪽의 인더스 강 유역에 이르는 이슬람 문명권의 광대함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시대 동안 정치적, 문화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 하나의 유기체적 단일성을 유지하는 매개가 되었던 이슬람의 제도적 속성을 중심으로 이슬

20) Lynch 1999, pp. 3.

람 정치질서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슬람권의 긴 역사와 넓은 영역에서 존재했던 모든 정치단위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중동 지역, 특히 논문의 사례에 해당하는 걸프위기의 주요 행위자였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가 탄생하기 전까지 이 지역을 지배했던 오스만제국 하에서의 질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오스만 제국의 역사는 이슬람의 긴 역사 중에서도 가장 가깝고도 강력한 기억이기에 현재의 중동 정치를 이해하는데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요 개념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동’, ‘이슬람’ ‘아랍’이라는 용어가 각각의 맥락에 따라 혼용될 것이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근대 ‘중동’ 정치질서의 범위는 엄밀히 말해 북아프리카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분포한 아랍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미 학계 안팎에서 ‘중동(Middle East)’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를 대체할 만한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적절히 존재하지 않아 ‘중동’ 국제정치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 일반적으로 중동의 국제정치를 설명할 때는 이란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이나, 앞서 밝혔듯 이 연구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지역에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에, 거의 다루지 않았다. 역사적으로도 이란은 넓게는 이슬람 세계의 일원이었으나, 민족적으로는 페르시아 인이며, 종교적으로는 쉬아 12이맘파를 국교로 하는 사파비 왕조가 설립되어 오스만제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겠지만, ‘이슬람’은 단순한 신앙체계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이해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슬람은 중동 정치의 특수성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변수로 지목되었으며, 정치와 이슬람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와 종교의 이분법적인 이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슬람이 ‘정치적인’ 종교인지, 중동의 정치가 ‘종교화’된 것인지 하는 질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이 정치, 사회, 문화 등 인간생활의 제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합일된 생활양식”²¹⁾이라

21) 정수일, 『이슬람문명』,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2).

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시각은 이슬람의 온전한 이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지역의 모든 정치의제들을 이슬람으로 치환시키는 데 일조해왔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슬람세계는 유럽과 같은 정교분리의 역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 지역에서 이슬람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권위와 제도 및 규범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는 이슬람 세계의 정치제도와 질서가 종교적 지향 그 자체에서 직접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슬람 세계의 정치질서는 시간적·공간적 조건에 따라 수없는 변용을 거쳐 왔던 바, 이 때 이슬람은 각각의 제도, 법, 규칙과 규범 등과 조응해 온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주류 국제정치학이론의 두 가지 입장-시간물신주의(chronofetishism), 현재중심주의(tempocentrism)-을 극복하고, 중동 국제체제의 행위자와 구조에 대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역사사회학적 접근을 취한다. 왈츠(Kenneth Waltz) 류의 신 현실주의 이론에서 국가는 기능적으로 미분화된 동질적 단위들로 가정되고, 국제체제는 무정부적이며, 오직 단위들 간의 세력배분 구조에 의해 그 내용이 규정된다. 반면 역사사회학적 관점은 현실주의에서 가정하는 국가와 무정부성에 대해 성찰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무정부적 구조 자체를 선형적으로 가정하기보다, 무정부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시도한다.²²⁾ 비슷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동지역의 무정부적 국제체제가 어떤 역사적 유산 속에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국가들의 행동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 Stephen Hobde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ical Sociology*, (London, New York : Routledge, 1998); Stephen Hobden and John M. Hobson, *Historical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K,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Fred Halliday, *The Middle Ea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ower, Politics and Ide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4.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에서는 근대 이행 이전 이슬람세계 질서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중동국제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19세기 이후 근대 이행의 역사와 근대국가 건설과정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나, 이슬람의 탄생 이후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기 전까지의 약 10세기에 가까운 역사는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아랍-이슬람 국제공간에는 오스만제국체제를 비롯한 고유의 국제체제가 오랜 시간 동안 영위되었으며, 근대적 의미의 주권국가체제는 유럽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지역에 주입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정치 단위의 존재양식, 국제공간의 표상 및 관념, 단위들 간의 행위 규범을 중심으로 이슬람국제체제를 조망할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시기는 최초의 이슬람 정치단위인 움마가 탄생한 624년부터 이른바 ‘동방문제(Eastern Question)’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774년 쿠틉 카르나이자 조약 이전까지이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살펴본 이슬람세계 고유의 질서가 유럽 세력의 팽창으로 어떻게 변형되고, 파괴되었는지 살펴본다. 18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방문제, 즉 유럽 열강의 입장에서 오스만제국의 불안정과 쇠퇴를 어떻게 관리,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유럽 국제관계사의 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장의 주요 관심사는 국제적 변화가 제국의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것인 만큼 당시 제국 내부의 역동에 주로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전통과 근대의 과도기에 아랍 지역에서 나타났던 일련의 물질적, 관념적 변화는 향후 근대 중동정치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어서 IV장에서는 II, III장에서 살펴본 역사적 유산과 공통의 경험 속에서 생성된 중동국제체제의 특성을 도출해볼 것이다. 오스만 제국의 해체 이후 중동 아랍 지역에는 유럽 열강들에 의해 다수의 근대 국가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주권, 영토 등의 측면에서 온전한 근대국가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 차원의 문제는 단위들 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쳐, 근대국가체제 속에서도 근대 이전의 질서와 규범

이 완전히 대체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무정부적 규범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 속에서 아랍 국가들의 정체성과 이익이 어떻게 다층적으로 규정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장의 주요 목표이다.

뒤이어 V장에서는 IV장에서 제시한 중동국제체제의 특징을 바탕으로 걸프위기 당시 지역 정치의 동학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특히 실질적 안보위협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정부적 규범과 지역 고유의 규범들이 아랍 국가들의 외교정책 결정 및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따라서 위기가 전쟁으로 변모한 이후, 다시 말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구체적인 전쟁의 수행 및 종결의 과정은 이 장의 설명대상이 아니며, 여기서는 위기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의 외교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집중할 것이다.

Ⅱ. 근대 이전 이슬람 질서의 특성과 변환

중동 지역의 불완전한 근대 이행을 설명할 때,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근대 이행의 과정은 빈번하게 언급되어 온 반면, 전통질서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특히 이슬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슬람 최초의 정치공동체인 움마(Umma)와 정통 칼리파의 시대는 정당한 정치질서에 대한 메타포로 자주 등장하였으나, 이슬람의 중간시기(Middle Periods, 945-1500)²³⁾와 오스만 제국의 유산에 관해서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면이 크다. 특히 아랍 민족주의의 확산과 근대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 시대의 유산은 투르크 민족의 지배 하에서 민족적 가치가 파괴되고 억압받았던 역사라는 평가 하에, 비난받거나 외면당해왔다.²⁴⁾ 그러나 뒤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범 아랍주의’는 근대적 기획의 산물에 가까우며, 오히려 아랍 세계는 오스만 제국 멸망 그 이후까지 민족적 가치보다 이슬람 질서의 수호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유럽 혹은 다른 여타 지역의 경험과 구별되는 이슬람 세계의 국제질서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슬람 세계의 질서는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 주변 세계와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 왔다. 그러나 이 때 이슬람은 정치전통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초월하는 유대감의 근원이자, 지역 안팎의 상호작용을 규율하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규범으로 작동하면서 이슬람 세계의 단일성을 유지시켜 왔다.

23) 유럽의 중세(the Middle Ages)와 구별하기 위해 마셜 호지슨이 고안한 개념으로, 마셜 호지슨, 에드먼드 버크 3세 역음, 이은정 옮김, 『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유럽, 이슬람, 세계사 다시 보기』, (파주: 사계절, 2006). 참조.

24) 도널드 쿼터트, 이은정 옮김, 『오스만제국사: 적응과 변화의 긴 여정, 1700~1922』, (파주: 사계절, 2008), pp. 298-301.

1. 정치 단위의 변천

이슬람 세계의 역사에는 최초의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를 포함하여 통치 집단의 민족적 배경, 통치법률 등의 변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정치체가 등장한다. 이 절에서는 역사적 시기 별로 나타난 정치체의 속성을 정치적 권위의 획득 방식, 통치 질서의 특징 등을 통해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슬람이 정치단위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었다는 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요소였다는 사실이다.

1) 이슬람 움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 지역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무함마드를 지도자로 하는 움마는 622년의 이주(히즈라)를 통해 탄생했다. 이는 종래의 종족적, 부족적 정체성을 초월하는 정교일치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움마는 사막의 한 가운데서 홀로 존재하며, 오직 이슬람의 교리로 통치되는 공동체로 상상되어서는 안 된다. 움마가 그 통치 구조상,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공동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순수한 종교적 이상에 의해 탄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움마는 과거 부족적 전통과 고대 근동 지역의 전통을 동시에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움마는 정치적 제도에 있어 하즈, 타와프, 최고 지도자의 선출 방식 등에서 부족적 전통을 계승했으며(정상률 2013, 40-43),²⁵⁾ 정치철학적 측면에서는 사산왕조를 비롯,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정의의 순환(Circle of Justice)’ 관념을 유지하고 있었다.

움마는 무함마드 사후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칼리파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이 시기를 정통 칼리파 시대(632-661)라고 부른다. 이후 우마وی야 왕조(661-?)부터는 합의에 의한 통치자의 선출방식이 사라지고, 세습왕조가 기본적인 정치단위가 되었으나, 1258년 몽골의 침

25) 정상률, 『이슬람국가론과 지대국가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3), pp. 40-43.

략으로 압바스 조가 멸망하기 전까지 칼리파의 권위는 단위의 권위와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가장 중요한 기제였다.

2) 군사-시혜 국가(military-patronage state)

튀르크족이 이슬람세계에 유입된 이후 압바스 조 시기 셀주크 튀르크가 사실상의 정치적 지배를 하게 되면서 이슬람 세계에는 새로운 국가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몽골의 지배를 거치면서 이슬람세계에는 유목국가의 통치 제도 및 관념 또한 유입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한마디로 기존의 정주형 이슬람 제국(sedentary religious model)과는 대비되는 세속적인 투르크-몽골식의 유목 제국(nomardic secular concept of world empire)의 형태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²⁶⁾

투르크와 몽골은 보통 사회를 정치 군사 엘리트(*askeri*)와 세금을 납부하는 신민(*reaya*)으로 이분하였으며, 지배집단이 점령된 영토를 배분해 통치하는 속지 제도(*appanage system*)를 정치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적 주권(collective sovereignty)은 중앙집권화를 어렵게 했으며, 이는 곧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국가는 사실상 느슨한 부족 연합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기에는 샤리아를 통한 도덕적 권위 자체보다 질서의 유지나 국가의 보전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세속적이더라도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몽골의 법인 야사(*yasa*)가 종교적 권위 없이도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관념이 이슬람 세계에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²⁷⁾

26) Amira K. Bennison, "The Ottoman Empire and its Prece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English School Theory," in Barry Buzan and Ana Gonzalez-Pelaez (eds.),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Middle East : English school theory at the regional level*. (Basingstoke : Palgrave Macmillan, 2009), pp. 50.

27) 이은정, "샤리아와 카논 사이: 오스만 법 체제의 운용과 그 변화." 『동양사학연구』, (2013), pp. 203.

또한 칼리파의 명맥이 끊어진 것 역시 국가와 통치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 지역에서 군사적 힘에 의한 통치나 비교적 명확한 경계 내에서 발휘되는 통치자의 주권 등은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었다. 이는 일종의 정교분리의 관념으로 이어졌는데 종교적 정당성 없이 오직 힘에 의해 통치하는 군주라 할지라도, 지배의 정당성이 암묵적으로 인정되었으며, 후에 이슬람 4대 법학파 중 하나로 발전되는 하나피는 ‘통치자란 권력을 효과적으로 점유하고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울라마가 신법의 수호자이긴 하지만 여기서 신법은 공동체의 법률이지, 국가의 법률은 아니라고 보았는데,²⁸⁾ 이는 사실상 관습법과 종교법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²⁹⁾

또 무슬림이 아니거나, 종교에 관해 거의 무지한 통치자들이 등장하면서, 종교의 수호에 관한 책임은 국가에서 사회로 상당 부분 이양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통치자들은 징기즈 칸으로부터 내려오는 정치적 권위가 이 지역에서는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1295년 가잔 칸(Ghazan khan)의 개종을 시작으로 여러 몽골 칸국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였으며 결국 각 국가의 지배는 다시 샤리아를 통해 정의를 구현한다는 과거의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압바스 조의 멸망 이후 오스만제국이 부흥하기 이전까지의 시대는 스텝 유목민의 전통과 이슬람의 전통이 경쟁하며 새로운 정치적 혼합모형을 만들어 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⁰⁾

또 통치구조와 관련하여 샤리아에서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관계는 딘마(dhimma)라고 부르는 계약에 의해 규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비무슬림은 인두세인 지즈야(jizya 혹은 cizye)를 납부하는 대신 이슬람 국가의 신민으로 인정받고, 고유의 종교와 법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다.

28) Colin Imber, *Ebu's-su'ud : the Islamic legal tradition*,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65-66.

29) Bennison, 2009, pp. 49.

30) Cornell Fleisher, *Bureaucrat and Intellectual in the Ottoman Empire: The Historian Mustafa Âli (1541-160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p. 274-275.

따라서 당시 신민들에게 집단적 소속감은 국가보다는, 지방의 공동체, 종교 공동체 등에 있었다. 지역의 주민들은 이슬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초국가적 정체성을 가진 동시에, 마을이나 부족, 도시 등의 국지적인 단위 속에서 삶을 영위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정치적 지배 역시 영토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또한 지배공간이 영토적으로 구획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고정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상호배타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로 인해 오스만 제국 시기에도 국가의 절대주의적 열망이나, 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중앙집권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다.

3) 이슬람 제국

16세기 들어서는 고도의 정치적 분열의 시대를 지나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국가 구조가 등장하게 되었고, 오스만 제국도 이렇게 등장한 제국 중 하나였다. 오스만 국가는 초기에는 아나톨리아의 투르크 소국에 불과하였으나, 1453년의 콘스탄티노플 정복, 1517년의 맘룩 술탄국의 정복을 통해 16세기 무렵에는 ‘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 탄생 배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제국은 다른 튀르크-몽골 국가들과 같은 정치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16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의 이슬람 성지들을 점령하고 ‘성지의 보호자’를 자임하면서 이슬람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국의 정체성은 튀르크-몽골의 세속 군주국가, 보편적인 무슬림 사회로서의 움마, 칼리파의 형태로 나타나는 통일된 종교적/정치적 권위의 총체, 이슬람 전사(*ghazi*) 등 다양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오스만 제국은 어떤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종교적 속성과 세속적 속성들이 가장 잘 융합된 정치제도를 발전시켰다.³¹⁾ 우선 제국의 지배자로서 술탄 역시 종교공동체의 지도자라기보다, 권력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주권적 통치자에 가까웠다. 그러나 술탄

31) Niyazi Berkes. *The Development of Secularism in Turkey*. London: Hurst&Company, pp. 9

이 완전히 세속화된 절대군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술탄의 의지나, 명령에 의해서만 제국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권위의 정당성을 기대고 있었기 때문이다.³²⁾ 또한 이전 시기에 독립적인 집단으로 존재했던 올라마(율법학자)들은 오스만 시기에 관료제 내로 편입되어 술탄의 통치를 정당화, 보조하는 집단으로 재창조되었다. 특히 올라마 중 가장 높은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셰이홀 이슬람(Şeyhul-İslâm)은 종교정책에서부터 전쟁 개시,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술탄의 결정이 샤리아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가졌다.

한편 제국의 사회구조는 술탄을 정점으로 계서적으로 배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스만 제국은 그 넓은 영토만큼 종교적, 민족적, 직업적으로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사실상 중앙의 통치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밀레트(*millet*)’ 제도이다. 제국에는 각각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크리스토포교, 유대교도로 구성된 3개의 대표적인 밀레트가 존재했으며, 각 밀레트는 독립적인 시민법, 법률 체계, 사회복지 및 교육 제도 등 보유하고, 상당한 자치권을 향유했다. 따라서 각각의 종교 집단은 밀레트 내에서 종교적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고, 술탄은 인종, 민족, 종교,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신민들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이나 집단이 모두 평등한 권리나 지위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오스만 질서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계층 및 집단 간의 불평등 유지와 철저한 분화(*rigid differentiation*)를 통해 유지되었다. 무슬림은 제국의 1등 시민으로서 다른 종교집단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였으며, 비 무슬림들은 법적으로 무슬림보다 지위가 열등했고, 오스만 제국의 첫 백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관이나 군에 복무할 수 없었다.³³⁾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차별이라

32) 샤리아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법으로 기능하기에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실정법을 통해 보완되어야 했다. 이는 이전 시대의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이 중 오스만의 실정법인 카눈(*kanun*)은 이슬람국가의 실정법 중 가장 발달된 형태로 평가받았다. 오스만제국의 법체계 내에서 종교법인 샤리아와 실정법인 카눈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이은정(2013) 참고.

33) 쿼터트, 2008, pp. 113.

기보다 경계의 문제에 가까웠으며, 오스만제국은 중세 유럽처럼 계층 간의 분화나 세습적 신분의 예속화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즉,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하였고, 불균형의 폭도 크지 않았으며 개인과 집단 간 경계는 애매 모호했고 상호 침투가 가능한 사회였다.³⁴⁾

같은 맥락에서 중앙-지방 관계의 특징은 중앙집권화와 지방의 자율성 간의 끊임없는 긴장관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발칸과 아나톨리아, 일부 아랍 지방에서는 중앙집권화의 수준이 높아 지방의 자율성이 제한적이었으며, 지방관 역시 이스탄불의 임명을 받았으며 제한된 기간 동안만 지배권을 가질 수 있었다. 반면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크림 반도 지역에서는 세습 왕조나 가문 등이 오스만 술탄의 승인을 받아 사실상 독립된 영역을 지배했다. 예를 들어 1591년 튀니스에서 일어난 예니체리들(Janissaries)의 반란으로 튀니스와 트리폴리, 알제는 중앙정부에 세금을 송부하는 대신, 자체적인 군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 특별 행정구역(eyalet mumtaze)의 지위를 얻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후대의 일부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각 지방 왕조들이 독립적인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유했음을 들어 개별적인 주권을 보유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스마 모아야(Asma Moalla)에 따르면, 오스만의 임명과 위기 시 군사적 원조에 대한 상호 의무 및 권리, 선물의 교환 등은 각 지방들을 제국의 일원으로 유지시켰다.³⁵⁾ 다시 말해 오스만의 체계는 완전히 통합된 속주부터 보다 자율적인 속주들, 그리고 속국들(client kingdoms, vassals)로 이루어진 연속체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같은 국가의 통제 하에 있으나, 서로 다른 법률과 관료에 의해 다양한 종교집단들이 함께 삶을 영위하는 일종의 ‘모자이크 구조’가 수백 년 간 오스만제국의 근간을 이룬 질서의 핵심이었다.³⁶⁾

34) Halil Inalick. *The Ottoman Empire : the classical age, 1300-1600*, (London : Phoenix, 1994), pp. 44.

35) Asma Moalla, *The Regency of Tunis and the Ottoman Porte, 1777-1814*(London: Routledge Curzon, 2004), Bennison, 2009, pp.54.에서 재인용.

36) Roderic H. Davison. 1954. "Turkish Attitudes Concerning

2. 국가 간의 관계설정과 국제의 인식

1) 이슬람 세계의 이분법적 국제관념

이슬람에서는 이론적으로 ‘이슬람 영역(Dar al-Islam)’³⁷⁾과 ‘전쟁 영역(Dar al-harb)’으로 구분되는 이분법적 국제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이슬람 영역’은 무슬림, 구체적으로는 칼리파의 지배 하에서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에 의해 통치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반면 ‘전쟁 영역’은 이교도의 법으로 통치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무슬림이 아닌 여러 이교도들이 서로 경합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이들 두 영역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슬람의 영역이 이교도의 영역에 대해 전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위계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관념될 수 있는 ‘국제’관계는 ‘이슬람 영역’과 ‘전쟁 영역’에 속하는 이교도 집단들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³⁸⁾ 그리고 양자는 늘 전쟁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이슬람 세계가 형성될 때부터 오스만제국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비잔틴 제국은 이슬람 세계의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인식되었다.

나중에는 이슬람 법학이 발전하면서 ‘평화 영역(Dar al-sulh)’ 혹은 ‘계약 영역(Dar al-'ahd)’이라는 제 3의 범주가 추가되었다. 3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슬람 영역의 팽창이 점차 중단되고, 전쟁이 수행되지 않는 시기 및 영역이 늘어나면서, 협정이나 휴전을 의미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국제인식은 여전히 이슬람영역과 전쟁영역으로 구분되는 전통적인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는 몽골 침략

Christian-Muslim Equality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59, No. 4, pp. 844-845.

37) 여기서 말하는 ‘영역(dar, دار)’은 지리적 관념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슬람 영역’과 ‘전쟁 영역’의 이분법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는 우선 무슬림 공동체와 비 무슬림 공동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으로,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하면 무슬림 피통치자에 대한 이슬람식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Ahmed Labeeb, Bsoul. 2007.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Islam.” *Digest of Middle East Studies*, Vol. 16, No.2, pp. 71-96.

38) 와타나베 아키오 저. 권호연 역. 1992. 국제정치이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pp.79.

이후 투르크-몽골식 정치담론이 유입된 이후에도 전쟁이나 갈등을 정상상태 혹은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투르크의 전통 및 스텝 유목민의 기습공격 방식이 이슬람의 지하드(*jihad*)/가자(*ghaza*) 체계와 쉽게 융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³⁹⁾

한편, 이슬람 공동체의 설립으로 무슬림 간의 갈등이나 분열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슬람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던 씨족, 부족 등 다양한 사회집단/계층들은 각각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들 간의 대립 역시 그대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 이전 시대와는 달리, 이들은 무슬림으로서의 유대와 일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종족이나 가문, 혹은 영토적 경계가 아닌 종교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2) 이슬람 세계의 분열

이처럼 종교를 기준으로 한 이분법적 국제구조 관념은 이슬람 영역이 국제체제에서 하나의 단위로 인식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이슬람 영역은 칼리파를 중심으로 한 통일된 정치체로서, 내부적 균열 혹은 즉 다수의 이슬람 영역 혹은 국가의 존재는 이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마이야 왕조 시기까지 유지되었던 이슬람 세계의 통일성은 압바스 왕조 시기부터 점차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베리아 반도에 설립된 후기 우마위야 왕조뿐만 아니라, 이집트 지역의 파티마 왕조 등 여러 ‘국가(*dawla*)⁴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 Bennison, 2009, pp. 50.

40) ‘다울라(*dawla*, الدولة)’는 아랍어로 ‘국가’를 의미하는 단어로, 영어의 ‘state’로 번역된다. 현재 이 용어는 번역어의 의미로 자주 활용되지만, 서구적 의미의 근대국가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전통적 정치 조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 바르구티(Tamim, Al-Barghouti, 2008)는 ‘다울라’가 서구에서 의미하는 ‘state’의 의미로 치환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역사적, 종교적 맥락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tate’가 국가에 대한 서구적 관념이라면, 다울라는 정치적 조직체 일반에 대한 이슬람식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밝히기 위해 그는 움마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움마가 무슬림들에게 궁극적 형태의 정치조직이자 무슬림 각 개인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이미지라면, 다울라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정치적 배열(*political arrangement*)이라고 밝히고 있다.

압바스 칼리파의 상징적 권위에 의해 이슬람 세계의 최소한의 총체성은 유지될 수 있었는데,⁴¹⁾ 1258년 몽골의 침략으로 마지막 칼리파가 사망하면서 이슬람 세계는 완전한 정치적 분열의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16세기 본격적인 제국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슬람 세계는 수많은 국가가 공존하며, 출현과 소멸을 반복하는 오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알 가잘리(al-Ghazali)와 같은 이슬람 법학자들도 정치적 현실과 이상적인 보편 무슬림 질서의 관념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수의 이슬람 국가의 존재에 대한 관념을 수용하게 되었다.⁴²⁾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되고, 이들 간의 관계 규범이 체계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슬람법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사실상 관행의 영역에 머물렀으나,⁴³⁾ 다만 이들 간의 침략과 전쟁은 주로 올바른 이슬람 질서의 회복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상호작용, 특히 이슬람 상인들의 교역과 성지 순례인 하지(Haji), 이슬람 학자들의 여행⁴⁴⁾ 등을 통해 이슬람 세계의 통일성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3) 이슬람 제국 시대의 국제 공간

압바스 제국의 멸망 이후 약 15세기경까지 이슬람 영역과 전쟁 영역이라는 이분법적 관념이 존속되는 가운데, 이슬람 내부의 분열된 현실 또한 고착화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즈음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이

Tamim Al-Barghouti, *The Umma and the Dawla: The nation-state and the Arab Middle East*. (London: Pluto Press, 2008). 참조.

41) 10세기 초반, 이들은 칼리파를 자칭하며 압바스 칼리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압바스 조 영토 내에서 생겨난 수많은 공국들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바스 칼리파의 승인을 필요로 했다.

42) Bennison, 2009, pp. 47-48.

43) 와타나베 아키오, 1992, pp.84.

44) Dale F. Eickelman and James Piscatori, *Muslim travellers : pilgrimage, migration,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 (London : Routledge, 1990)

하게 되었다. 여러 국가들이 흥망을 거듭하던 과거의 교착상태가 끝나고, 오스만, 사파비, 무굴이라는 제국들이 이슬람세계를 통치하는 ‘화약제국(gunpowder empires)⁴⁵⁾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호지슨은 이 시대의 이슬람세계를 “서구 이전에 패권적 지위에 가장 근접했던 사회”라고 평가한 바 있다.⁴⁶⁾ 그리고 이 시기에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세계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제국으로서 많은 유럽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이슬람 관념에 기초한 이분법적 세계인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1) 전쟁 영역: 유럽과의 관계

이 지역에서 지속된 전쟁영역과 이슬람영역의 위계적 구도와 지하드 혹은 가자의 개념은 ‘신성한 투르크족 전사(*ghazis*)’로서의 오스만제국이라는 개념으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오스만국가가 점차 성장하여 이루어낸 1453년의 콘스탄티노플 점령은 이슬람 세계가 7세기부터 전개한 공격의 정점(culmination)으로 간주되었으며, 발칸과 에게 해 침공 역시 이교도들

45) 마셜 호지슨(Marshall Hodgson)은 그의 책 "*The Venture of Islam*"에서 이 시기를 ‘화약제국의 시대(The Empires of Gunpowder Times)’라고 명명했는데, 오스만·사파비·무굴은 대포와 머스킷 총을 활용하여 더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국가들과 분명한 차이점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후대의 연구에서 상당히 불충분한 개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는데, 거의 동시다발적이었던 세 제국의 탄생에는 군사기술 이상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글러스 스트라이샌드(Douglas E. Streusand)는 화약제국이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하되, ‘화약무기를 통해 건설된 제국’이 아닌 ‘화약무기 시대의 제국(empires of the gunpowder era)’으로 화약제국의 개념을 수정하고자 했다. 반면, 로아즈 머피(Rhoads Murphey)는 전쟁사의 관점에서 당대에 화기가 기마 군사(cavalry archers)를 어느 정도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Marshall Hodgson, *The Venture of Islam 3: The Gunpowder Empires and Modern Times*(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Douglas E. Streusand, *Islamic Gunpowder Empires: Ottomans, Safavids, and Mughals*(Boulder: Westview Press, 2011); Rhoads Murphey, *Ottoman Warfare 1500-1700*(New Brunswick, N.J. : Rutgers University Press, 1999)

46) Hodgson, 1974, pp. 3.

에 대한 지하드로 정당화되었다.

한편 오스만제국은 이전 시대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럽에 대해 철저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일례로 제국은 외국 사절들에게 오스만의 복식을 갖추고 술탄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도록 했다. 그러나 오스만제국은 외교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대체로 상당히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잔틴 인들과 결혼 동맹을 맺기도 했으며, 유럽국제 체제에도 깊숙이 개입해있었다.

그러나 2번에 걸친 오스트리아 공격에 실패한 뒤 1699년 카를로비츠 조약(The Treaty of Carlowitz) 체결하기까지 제국의 국제관계는 조금씩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1522년, 술탄이만 1세가 1차 빈 포위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17세기 말까지 제국은 유럽과의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1593년부터 1606년까지 계속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도 오스만은 결국 승리를 거두었으나, 극심한 국력 소모로 1606년에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는 합스부르크의 지배자를 술탄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한 첫 번째 조약이었다. 이후 술탄 메흐메드 4세(재위 1648-1687)의 시기에 재상 무스타파(Kara Mustafa)가 반세기에 걸친 오스트리아와의 국경문제를 해결하고자 1683년 빈을 포위했으나 오스만 제국은 다시 한번 실패를 맞게 된다. 이후 전쟁은 15년 간 계속되었으나, 1697년 젠타(Zenta)에서 사보이의 유진(Eugene) 공에게 제국이 결정적으로 패배하면서 1699년 1월 카를로비츠에서 강화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제국은 이 조약을 통해 트란실바니아와 바나트(Banat) 지역을 제외한 헝가리의 거의 대부분 지역을 오스트리아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이 조약은 오스만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오랜 공포를 없애는데 크게 일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제국은 1718년의 파사로비츠(Pasarowitz) 조약, 1739년의 벨그라드 조약(Treaty of Belgrade)를 통해 카를로비츠 조약으로 잃었던 지역을 대부분 회복했으며, 이 시점까지 '전쟁영역'에 대한 오스만 제국의 기본적인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 이슬람 영역

외교사 혹은 국제관계사의 관점에서 오스만제국은 주로 유럽국제체제의 일원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오스만 제국의 외교에서 유럽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제국은 중앙아시아, 인도, 북아프리카, 이란 지역의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⁴⁷⁾ 그러나 잦은 외교사절의 파견과 그 외교적 사안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들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후술하겠지만, ‘지하드(*Jihad*)’는 그것이 단순히 수사로 쓰였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슬람세계에서 지속적인 준거(referent)로 활용되어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를 구별하는 최소한의 문화적 경계선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이슬람의 유산과 투르크-몽골의 통치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슬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이슬람 제국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칼리프라는 지위는 일종의 수사적 효과로 인지하고 있었다.⁴⁸⁾ 또한 사파비 왕조가 제국의 정체성을 ‘쉬아파(Shi'ism)’에 두면서, 움마의 통일성은 훼손되었으나, 오스만과 사파비의 관계는 “상호 인정과 협약의 정신”⁴⁹⁾ 하에 유지되었다. 또한 상업적, 외교적 관계 및 여러 조약의 존재, 같은 전쟁에 관한 관념 등은 양자 간의 장벽이 상당한 투과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스만제국과 그 속국들, 사파비 왕조, 모로코의 샤리프는 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었으나, 주권이나 국제법, 외교, 전쟁 등에 관해 상당히 비슷한 관념을 공유하고 있었다. 우선 주권에 관하여, 지배집단의 정당성은 지하드나 가자로 개념화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에 의해 입증되었다. 각각의 통치자들은 ‘개략적으로’ 구획된 영토를 지배했는데, 이슬람 세계의 국경은 고정된 형태로 이루어져있었다기보다, 다수의 경계 구역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가까웠는데,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충성의 대상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느슨한 형태의 국경과 통치는 부족주의의 전통과 이슬람의 특성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19

47) 예를 들어 1700-1774년 사이에 사파비의 군주는 오스만 제국에 약 18차례의 외교사절을 파견했다. 쿼터트, 2008, pp. 143.

48) Imber, 1997, pp. 103.

49) Murphey, 1999, pp. 5.

세기에 오스만 제국과 이란, 알제/모로코의 섭정이 국경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경계를 확정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동부 아나톨리아나 이라크, 시리아의 사막 지대 등 부족주의가 우세한 지역에서는 신민들이 주로 세금이나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 빈번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주권 침해의 사례들이 이교도들에게 이슬람 영토를 빼앗기는 것에 비해서는 전혀 중요한 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공통의 믿음은 이슬람 국가들 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머피(Roads Murphey)에 따르면, 오스만제국의 전선은 유럽 대륙 방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데다가, 조약의 이행 요구, 분쟁 해소 등을 위해 같은 무슬림에게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과 이교도에 대해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행위였던 것이다.⁵⁰⁾ 전술했던 바와 같이 이때는 현재와 같은 의미에서 순니-쉬이 간의 종파적 차이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안이 아니었다.

16세기 초, 사파비와 오스만은 동부 아나톨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그때까지 맘룩 술탄조의 영토였던 시리아와 이집트를 두고 경쟁하였으나, 셀림 1세 시기 오스만이 이 지역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별다른 군사적 충돌은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1639년, 약 15년 간 사파비가 점령하고 있던 바그다드를 오스만에 반환했던 주바브 조약(Treaty of Zubab)을 끝으로 양국 간에 큰 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오스만과 사파비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1639년 Treaty of Zuhab를 체결한 이후로 상당수의 사절들이 양국에 각각 머물렀다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슬람 세계에서의 외교적 특성에 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지만, 일부 모로코, 사파비조 사절들의 기록을 통해 무슬림 국가들 간의 외교적 관례상의 유사성, 그들이 기독교 국가들에서 느낀 불쾌감 등을 짐작해 볼 수 있다⁵¹⁾. 한편, 현재 남아있는 오스만의 외교 문서들은 대부분 유럽국가와의 것인데, 베니슨(Amira K. Bennison)

50) Murphey, 1999, pp. 173.

51) Peter Jackson and Laurence Lockhart, *The Timurid and Safavid perio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 387.

은 이것이 무슬림국가와의 교류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간의 상당한 친밀감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⁵²⁾

결론적으로 오스만제국과 사파비조 모두 유럽 국가들과 깊게 관계를 맺고 있었고, 종교적/문화적 차이가 있긴 했지만 이것들이 전쟁이나 외교, 세력균형의 문제 나아가 하나의 국제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스만 제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긴장 관계 또한 종교적 충돌이라기 보다, 지극히 현실정치적인 강대국 간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국가들은 이슬람 영역의 영토적 통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통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국가 간 경계⁵³⁾를 통해 순례와 학자들의 교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3. 샤리아와 지하드

전술한 바와 같이 이슬람세계에서는 이론적으로 이슬람 영역이 전적으로 우위에 있는 위계적 국제질서를 가정하기 때문에, 모든 단위들의 관계 역시 큰 틀에서는 샤리아에 의해 규정된다. 단위 간의 대등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이해와 공유를 전제로 하는 행위규범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샤리아를 이슬람 세계의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틀로 간주하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주장일 것이다. 왜냐하면 샤리아는 주로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 간 관계는 샤리아의 주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염두 해야 할 점은 샤리아를 고정된 공법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샤리아는 처음부터 실정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슬람 율법학자들의 논의가 축

52) Bennison, 2009, pp. 62.

53) 이들 간의 국경은 분명한 영토선으로 분할(demarcation)되어 있다기보다 경계지방(marches)들로 구분되었다.

적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최종적 권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판단 및 행위의 기준”⁵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으로서 샤리아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지하드의 측면에서 전쟁 수행과 관련된 지침에 한정되어 있다. 무슬림들에게는 전 세계에서 샤리아에 의한 통치를 실행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지하드(*jihad*), 다시 말해 “이슬람식의 정당한 전쟁(*Islamic bellum justum*)”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전쟁’이 반드시 물리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군사적·정치적·심리적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한 종교적 선전을 의미한다.⁵⁵⁾

전술했던 바와 같이, ‘이슬람영역’과 ‘전쟁 영역’은 이론적으로 늘 전쟁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전쟁 상태라는 것이 반드시 실질적인 적대심이나 협상 혹은 조약 체결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협상 대상으로서의 동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가깝다. 이는 이슬람 영역의 우위 속에서 단지 무슬림 주권이 실현되기 전까지 해당 지역에 필요한 통제나 권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다양한 상황을 거치면서 지하드의 의미도 변화해왔다. 적과의 평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지하드의 중단 역시 이론적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법학자들은 지하드의 중단이 무슬림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판단에 의해 ‘휴면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이 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지 않으며, 통치자가 필요할 때 다시 재개되는 것이라고 지하드를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쟁영역’ 중 쌍무적 계약을 통해 지하드가 중단된 지역은 ‘평화 영역’ 혹은 ‘계약 영역’으로 다시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범주는 모든 이슬람 법학파들 사이에서 합의된 개념은 아니었지만, 평화 개념을 중심으로 이슬람 영역과 이교도 세계에 속하는 정치단위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및 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⁵⁶⁾ 한편 경험적으로도 지하드의 중지 상태는 다른 세계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적 현실로 자

54) 이은정 2013, pp. 201.

55) Majid Khadduri, "Islam and the modern law of na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0, No. 2 (1956), pp. 359.

56) 와타나베. 1992, pp. 82.

리잡아갔다.

무슬림들 간의 전쟁은 원칙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으나, 배교자나 반역자를 무슬림 공동체에 통합시킨다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공격은 정당화되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무슬림 군주의 통치방식에 문제를 삼는 형태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다시 말해 무슬림 국가들끼리의 전쟁에서도 샤리아의 수호나 이슬람세계의 정의 실현 등이 수사적 표현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Ⅲ. 오스만 제국의 해체와 근대 이행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슬람세계의 법적, 정치적 질서가 오스만 제국의 안팎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파괴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국은 내부적으로는 근대적 개혁, 외부적으로는 제국 바깥의 세계, 특히 유럽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 속에서 근대 이행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국가의 존재 방식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래의 규칙과 관행에서 벗어나 유럽의 방식에 적응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기존 질서의 점진적인 변형과 파괴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국의 해체는 유럽 열강들에 의한 외압과, 제국 내 종교·민족 집단 등에 의한 내압의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열강들이 내부적 갈등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두 가지 차원의 문제는 엄격하게 분리되기 어렵다. 동방문제의 구조 속에서 오스만 제국 내부의 문제는 곧 전 유럽적인 사건들이었던 것이다. 동방 문제는 18세기에는 주로 흑해 북쪽 해안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러시아와의 갈등에 국한되었으나, 19세기 들어서는 나폴레옹의 이집트 점령, 프랑스 혁명 및 민족주의 사상 등에 영향을 받은 각 지방의 자치 및 독립 요구, 그리고 이를 억제하거나, 부추김으로써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유럽 열강들의 노력들에 의해 확장, 전개되었다.⁵⁷⁾

이렇듯 18세기 후반 러시아-터키 전쟁에 뒤이은 쿠틉 카이나르자 조약(the Treaty of Kutchuk Kainardji)을 필두로 1923년 로잔조약(the Treaty of Lausanne)에 이르기까지 오스만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역사는 여러 차례의 전쟁과 조약, 협상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혔던 것처럼, 각 사건들의 전개과정은 이장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며, 여기서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전통적 오스만 사회와 질서의 붕괴, 그리고 그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제도로써 근대

57) A. L. MacFie, *The Eastern Question, 1774-1924*,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6).

국가체제의 도입은 제국과 외부세력과의 외부적 동학에 의해 설명 가능하지만, 제도의 수용에 있어서의 딜레마와 갈등, 그리고 절충 및 변화의 과정은 제국의 내부적 역동을 통해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

1. 오스만 구체제의 종말

1) 쿠틉 카이나르자 조약과 그리스 독립전쟁

18세기 말부터 제국은 기나긴 패전과 영토 축소의 국면에 들어서게 되어 더 이상 유럽 국가에 대한 우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동방문제 속에서 오스만제국을 포함한 중동의 정치주체들은 유럽 국가들이 주체가 되는 국제정치 게임에 객체로 흡수되었다.

동방문제의 기원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하나,⁵⁸⁾ 1768년부터 1774년 사이에 벌어진 오스만-러시아 전쟁 결과 맺어진 쿠틉 카이나르자 조약은 동방문제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조약이 중요한 이유는 조약을 빌미로 러시아가 발칸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약의 7조는 러시아 짜르를 그리스 정교 및 제국의 그리스 정교도들의 보호자로 인정하여, 러시아는 제국 내 그리스 정교도에 대한 보호권을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팽창을 막고, 오스만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려는 유럽 열강들의 갈등⁵⁹⁾과 제국의 내부적 분열의 서곡이기도 했다.

몇 세기 간 제국을 지탱해 온 사회질서 특히, 제국의 중앙과 지방 사이의 상호인정과 협상 및 통제의 방식은 1786년의 오스만-러시아 전쟁으로 점차 흔들리게 되었으며,⁶⁰⁾ 1820년대 그리스의 반란과 독립을 통해

58) 크게 세 가지 기점이 제시되는데, 첫째는 마케도니아에 투르크족이 출현한 14세기 둘째는, 발칸에 슬라브족에 등장한 16세기, 마지막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쇠퇴가 명백해진 18세기로 보는 의견이 존재한다. Macfie, 1996, pp.3.

59) 1774년 조약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이전의 외교정책을 비교적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지는 않은 상태였다.

60) 이은정, "'다종교·다민족·다문화'적인 오스만제국의 통치 전략." 『역사학보』, Vol.

오스만 구체제는 궁극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유럽으로부터 유입된 민족주의 이념이 오스만 제국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2) 국가 주도형 개혁과 내부적 갈등의 심화

그리스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오스만 중앙 정부의 통제력은 점차 약화되고 지방 정치권력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제국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국은 국내외의 여러 위협을 겪으면서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련의 개혁 과정을 통해 제국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세속주의의 흐름이 강화되었으며, 제국 전반에서는 가히 혁명적이라 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기존의 통치 구조와 질서 상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II장에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오스만제국의 전통적인 질서는 종족적, 종교적, 직업적 차이의 유지와 술탄에 대한 공통적 복종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무슬림의 우월성이 전제되는 가운데 비 무슬림들이 인두세를 내는 대가로 종교적 자율성을 보장받는 계약관계의 설정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유럽 열강의 간섭과 내부적 이탈의 가속화 속에서 오스만제국은 기존의 무슬림-비 무슬림 위계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민족주의와 자유의 관념을 흡수한 기독교 신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다가 유럽의 열강들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국의 통치 집단들 역시 비 무슬림들의 이탈과 제국의 와해를 막기 위해 이 문제를 진지하고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또 열강의 내정 개입을 차단하고 국제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은 불가피했다.⁶¹⁾

217. (2013), pp. 174.

61) 주요 칙령과 개혁안들은 국제회의 기간과 맞물려 발표되었는데, 이는 우연의 소산이 아니다. 오스만은 이를 통해 유럽 열강들에게 제국이 문명국가이며, 자체적인 개혁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동시에, 이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Macfie, 1996, pp. 40. 반면 유럽 열강들은 대체로 오스만제국의 개혁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점에서 오스만과의 입장 차가 컸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Davison(1954) 참조.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제국은 1839년부터 1876년까지 탄지마트라고 불리는 일련의 개혁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일련의 칙령 반포와 법적 개혁을 통해 내부적 변환을 꾀하게 되었다. 1829년의 복장 규제법뿐만 아니라, 탄지마트 시기 동안 반포된 두 번의 칙령 그리고 1876년에 공포된 헌법 등이 바로 그 구체적인 예이다. 제국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 무슬림의 법적 특권을 폐지하고, 비 무슬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신민들 간의 ‘평등’ 문제는 사회 질서와 신민들, 특히 무슬림의 정체성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⁶²⁾

우선, 1839년의 귤하네 칙령(Hatt-i Sherif of Gülhane)은 신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명예를 보호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무슬림들에게 있어 전통적으로 정의를 수호하는 것은 울라마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귤하네 칙령의 내용은 그들에게 있어 국가의 월권행위 혹은 이슬람 질서의 파괴에 다름 아니었다. 특히 평등의 관념은 무슬림들의 ‘정의’에 반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불신자(*gâvur* 혹은 *kâfir*)를 불신자라 부르지 못한다.”⁶³⁾는 표현은 정의가 무너진 데 대한 그들의 자괴감을 잘 표현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귤하네 칙령은 샤리아를 보장하는 등 여전히 이슬람의 색채를 많이 띠고 있었다.⁶⁴⁾

한편 1856년에 발표된 2차 개혁 칙령(Hatt-i Humayun)은 모든 신민의 평등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귤하네 칙령이 ‘권리’나 ‘은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술탄이 정의

62) 물론 종교 집단들의 평등성 문제가 당시 제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아니었겠으나, 종교적 차이의 유지가 정치, 사회적 질서의 기본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개혁과 근대화와 관련된 다양한 국면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의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63) Davison, 1954, pp. 859. 여기서 ‘불신자(*kâfir*)’란 이교도와 무신론자를 모두 포함하는 구란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64)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이견이 존재하는데, 아부 만네(Abu Manneh)의 연구는 귤하네 칙령의 이슬람적인 측면을 강조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Butrus, Abu Manneh, “The Islamic Roots of the Gülhane Rescript,” *Die Welt des Islams*, Vol. 34, No. 2. (1994). 반면 이는 오직 울라마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이었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Şükrü Hanioglu, *A Brief History of the Late Ottoman Empire* (Princeton ;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참조.

를 보장해주겠다는 정도의 선언에 그쳤다면, 2차 개혁 칙령은 “종교나 인종, 언어를 이유로 제국의 특정 집단이나 신민을 차별하거나 열등하다고 규정하는 행위를 금지”⁶⁵⁾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는데 이른 것이다. 이처럼 2차 개혁 칙령은 꺾히네 칙령에서 볼 수 있었던 이슬람적인 표현들이 사라지면서 상당히 비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기에 많은 무슬림들에게 파격을 넘어선 충격, 혹은 치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쿨렐리 사건(The Kuleli incident)’라고 불리는 1859년의 술탄 암살 음모 사건으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다.

평등성을 강조하는 추세는 이후로도 더욱 강화되어 1876년 12월에 공포된 성문법 중 “개인의 종교나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오스만인(Osmanli)은 법 앞에 평등하다”⁶⁶⁾는 표현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평등한 시민권의 개념 및 ‘오스만주의(*Osmanlılık*, Ottomaism)’ 관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밀레트의 경계를 넘어 순수한 영토적 경계에 기초한 오스만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개혁에 따른 변화는 매우 느린 속도로, 조금씩 진행되었으며, 제국이 붕괴될 때까지 모든 신민들의 완전한 평등은 끝내 달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시도들은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크게 일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각 종교집단 간의 반목이나 민족주의는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스만제국의 결속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애초의 의도와 달리 개혁의 시기 동안 신민 집단 사이의 관계는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악화되었다.

3) 발칸의 독립운동과 영토 상실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비 무슬림, 특히 기독교도들이 원한 것은 불평등의 해소가 아니라 완전한 독립이었다. 그리스 독립 전쟁을 필두로

65) Khater, Akram Fouad. *Sources in the History of the Modern Middle East*. (Boston: Cengage Learning, 2010), pp. 18.

66) Ignaz von Testa, *Receuil des traités de la Porte ottomane...*(Paris, 1864-1911), VIII, pp. 521-23; Davison, 1954, pp. 848에서 재인용.

18세기 후반부터 민족주의가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졌다. 종교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술탄의 선언은 열강이 술탄과 그의 신민들에게 각각 입김을 행사할 구실만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 등의 각 공국들은 여전히 오스만의 신민으로 남아있으면서, 각 열강들의 비호 아래 독립적이고 민족적인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 내 크리스티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내정에 간섭하거나,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워 반란을 유도했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 등 다른 열강들도 제국 내 크리스티교의 권익 보장을 요구했다. 이 시기 열강들은 영사관 등을 통해 비 무슬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스만 정부 역시 이들의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대사나 영사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실행시켜 주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대사였던 스트랫포드 캐닝(Stratford Canning)의 압력에 의해 1840년 개종자 처벌 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1867년 크레타 반란과, 1875년의 보스니아 반란, 1876년 4월~5월 간 발생한 불가리아 반란, 그 다음 달부터 약 반년 간 계속되었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와 전쟁 등 일련의 반란과 전쟁을 통해 오스만 제국은 발칸 지역의 영토를 사실상 거의 다 상실하게 되었다.

4) 근대국제체제 편입과 국제법의 수용

유럽 국가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오스만 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오스만 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유럽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러시아는 나폴레옹 전쟁(1804~1814)이 끝난 후 열린 빈 회의를 기점으로 오스만제국을 향한 남진정책을 채택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열강들은 러시아의 이러한 팽창정책 불편한 심정으로 바라보게 됐다. 이들은 러시아가 오스만제국을 차지할 경우, 유럽협조체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오스만 제국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영국은 프랑스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제국을 보호하고자 했다. 특히 러시아의 팽창을 막

기 위한 완충 지대로서 오스만제국의 존재가 필요했다. 따라서 영국은 오스만제국의 분할 혹은 붕괴가 유럽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국의 개혁을 지지하고 보조해주었다.

따라서 1856년 3월 30일에 열린 파리 평화 조약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파리회의 참가를 인정하고 제국이 공법의 혜택을 누리는 유럽협조체제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인정받았다. 이 조약에서 나타난 유럽 국가들의 주된 목표는 명백했다. 첫째는 오스만 제국의 독립과 통합성(integrity)을 보존하는 것과 둘째는 러시아를 봉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은 서구와의 관계에 있어 원칙상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제국법의 어떤 내용도 내부적 도전이나 반란을 이론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이슬람 영역의 어떤 영역도 전쟁의 패배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양도될 수 없었다는 점이 그것이다.⁶⁷⁾ 그러나 과거와 같은 힘을 누리지 못하면서 18세기 이래로 오스만 제국은 점차 법적 평등의 관념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국제관계의 규칙으로서 근대적인 국제법을 온전히 수용하게 되었다.⁶⁸⁾ 따라서 제국은 파리평화조약을 통해 유럽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제국의 영토보존을 공식적으로 보장받았다고 생각했다.⁶⁹⁾

그러나 크림전쟁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제국은 각기 모순되는 유럽 국가들의 요구 속에서 제국은 모든 열강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딜레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동시에 커다란 문제는 어느 국가가 제국에게 가장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유럽 열강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종류의 정부가 되도록 제국에 끊임없는 압력을 가

67) 최성권, 『중동의 재조명: 국제정치』,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1), pp. 81.

68) A. Nuri Yurdusev, "The Middle East Encounter with the Expansion of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in Barry Buzan and Ana Gonzalez-Pelaez,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Middle East*,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9), pp. 76.

69) 그러나 당시에는 여전히 기독교 국가만이 유럽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존재했기에, 동등한 체제의 일원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터키의 EU 가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두고 재 논의되기도 했다.

했다.

이러한 와중에 1876년 불가리아에서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살 문제로 오스만 제국에 대한 유럽 내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이전까지 오스만제국의 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영국 역시 이를 계기로 제국에 등을 돌리게 되었는데, 당시 영국의 글래스턴(William Ewart Gladstone) 수상은 오스만제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책자를 쓰기도 했다.⁷⁰⁾ 유럽에서의 여론 악화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유럽 열강들의 태도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거의 같은 시기에 유럽은 오스만제국의 현상유지에서 제국의 분해 이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2. 제국의 쇠퇴와 아랍 지역

18세기 후반부터 발칸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제국의 몰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반면, 아랍 지역에서는 1798년의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공⁷¹⁾과 메흐메트 알리(Mehmet Ali)의 반란을 제외하고는 오스만제국 전체에 파급력을 일으킨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들에서 비 무슬림 기독교도 신민들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와 독립운동이 번질 때에도, 아랍 지역에서는 아랍 민족으로서의 자기인식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이 지역은 투르크인들과 같은 무슬림으로서의 분노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1차 세계대전까지도 오스만제국의 지배하에 남고자 하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당시 아랍인들은 유럽의 지배보다 같은 무슬림인 오스만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70) William Ewart Gladstone, *Bulgarian horrors and the question of the East*. Whitefish, (MT : Kessinger Publishing, 1876).

71) 나폴레옹의 침략은 비록 '기도'에 그쳤지만, 오스만 제국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과의 전쟁은 주로 제국의 외곽, 발칸반도나 중앙아시아 지역 등지에서 벌어졌을 뿐. 제국의 중심부 지역이 공격받은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1) 구질서의 붕괴와 이슬람공동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국 중앙정부가 개혁을 추구하고, 신민들 간의 평등을 강조할수록 무슬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었으며, 더욱 큰 박탈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는 무슬림들이 다른 비 무슬림들에 대해 가지던 타고난 우월감 때문이기도 했고, 기독교들의 지위가 상승하고 이들에 대한 특혜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인 지위 하락을 느낀 데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또한 기독교도 신민들이 점차 제국의 권위에 반하여 반역자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본 공통의 경험이나 기억 역시 존재했다.

특히 당시 치외 법권(capitulation)을 통한 외국인들의 특권은 무슬림과 비 무슬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슬람 국가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던 이교도인은 이슬람 영역 내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이들에 대해 약간의 특혜를 시혜하던 관습이 원래 이슬람세계 치외 법권의 기원이다. 17세기 레반트 지역에서 프랑스 가톨릭교도들이 최초로 취득했던 교역 특권은 19세기 다른 열강들에게도 허용되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이용해 유럽 국가들은 오스만의 각 종교, 민족 집단들에게 직접 접근하였으며, 이들은 열강의 보호 하에 오스만 정부의 간섭이나 과세를 피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지마트의 개혁 칙령들이 발표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심각한 반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스니아, 크레타, 불가리아 등지에서 기독교도들의 반란이 잇따랐던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슬림들의 불만이 상당히 표면화되었다. 영토가 축소될 때마다 그 지역의 무슬림이 제국의 영토 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무슬림들은 더욱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⁷²⁾ 그러나 무슬림들의 분노는 기독교도에만 향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불만은 제국의 중앙정부에게도 향해 있었다. 이 시기 무슬림들은 유럽 열강의 잦은 간섭을 거부하지 못하는 오스만 정부의 나약함과 제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충돌 상황을 주도적으로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유럽 열강의 간섭에 자유롭지 못한 채로 제국이 과거와 달리 비 무슬림

72) 이은정, 2013, pp. 177.

집단들을 지나치게 비호하는 태도는 무슬림들로 하여금 큰 박탈감을 안겨 주었다.

1830년 레바논 북부 산악 지대에서 발생한 마론파와 드루즈 교도들 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러시아, 프랑스와 달리 자신이 보호해야 할 마땅한 종교 집단이 없었던 영국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레바논 산악 지대의 드루즈 일부, 프로테스탄트 교회 등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드루즈와의 갈등에서 마론파는 영국을 등에 업고 드루즈보다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권한을 지역 정부에 요구했고 여기에 분노한 무슬림, 드루즈들이 북부 산악지대에 있는 마론파 마을을 습격하면서 내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 내전은 다마스쿠스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수천 명의 기독교도가 죽고, 유럽 영사관이 불에 타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 때 오스만 중앙정부는 유럽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푸아드 파샤를 이 지역에 파견, 사태를 수습했는데, 이는 영국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었으며, 그들이 제국에 제안한 것은 ‘무타사리피아(*mutasarrifiyyah*)’라는 마론파들의 자치구이자 영국의 보호령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제국의 중앙정부로서는 탄지마트를 수행할 수 있던 배경에 영국의 지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보호하는 기독교도 신민들을 제국이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결국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종교적 밀레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무슬림들에게 더 큰 분노를 안겨주고 말았다.

또한 기독교도들에 대한 적대감이 커진 데에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역할도 컸다.⁷³⁾ 초기 이들의 선교 대상은 주로 아르메니아인에 한정되어 있어 무슬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2차 개혁칙령에서 인정한 개종의 자유와 맞물려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중적인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다.

73) 이와 관련하여 Hans-Lukas Kieser, *Nearest East: American Millennialism and Mission to the Middle Eas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0); Ussama Makdisi, *Artillery of Heaven: American Missionaries and the Failed Conversion of the Middle East*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참조.

2) 아랍민족으로서의 자기인식

18세기 이전까지 이집트와 레반트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하는 아랍 지역 역시 다른 오스만 제국의 영토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다. 지역마다 일부 차이는 있었으나, 이들 지역은 주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와 지방의 명사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통치되었으며, 특히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의 권위는 지역 주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만큼 명목상의 지배에 머물러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로 유목민으로 각각의 부족장의 통치 하에 있으며, 그 외의 정치적 권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술탄의 권위는 이슬람 칼리파로서의 그의 지위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이 지역에서도 일종의 민족주의 이전의 단계(proto-nationalism)가 나타나게 되었으며,⁷⁴⁾ 여기에는 연합진보회(CUP: Committee of Union and Progress)의 집권이 큰 역할을 했다. 칼리파를 자칭하여 이슬람의 부흥을 내세웠던 압둘 하미드 2세를 폐위하고 정권을 획득한 청년 투르크당은 제국의 부활을 위해 오스만주의를 내세웠으나, 이들의 오스만주의는 아랍 지역 내에서 정의하는 오스만주의와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 청년튀르크 입장에서 정의하는 오스만주의는 투르크 족이 주축(Turkish-core)이 되어 제국의 부활을 이끌고, 밀레트를 폐지하는 등 제국 내 비 무슬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이탈을 방지, 제국에 대한 '애국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반면 아랍 지역은 제국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CUP와는 그에 대한 처방이 완전히 달랐다. 이들은 예전 제국의 전성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제국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오스만주의는 탈 집중화된 아랍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CUP의 오스만주의와 아랍의 오스만주의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갈등의 소지는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아

74) 이미 1860년대 문예운동의 일종인 '나흐다(부흥)'가 시작되어 아랍문화의 부흥을 촉구했으나, 이는 정치적 운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민족주의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랍지역에서는 ‘민족주의’ 이념이나 민족국가로서의 독립보다 이슬람 움마의 단일성, 칼리파의 지배 등 이슬람 질서의 수호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음을 암시해준다.

이는 지방 단위에서는 중앙 권력의 개입 없이 사실상 종교지도자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아랍인들 역시 자신들을 민족으로서의 아랍인이라기보다 오스만 인으로, 무슬림으로, 그리고 자신이 속한 도시, 지방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⁷⁵⁾ 이러한 성향은 1차 세계 대전 이후까지도 계속 유지되었으나,⁷⁶⁾ 같은 이슬람 세계의 일원이었던 투르크 민족이 터키 공화국을 건설하고, 아랍 지역에 본격적인 위임 통치가 시작되면서 이들은 점차 아랍 민족으로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아랍 민족주의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건국 때문이었다.

75) 아랍 민족주의의 기원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은 아랍인 무슬림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제국의 신민으로 자기규정을 하고 있었던 반면, 아랍인 기독교도들은 일찍부터 민족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아랍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했던 것으로 본다. 엘버트 후라니, 김정명, 홍미정 옮김, 『아랍인의 역사』, (서울: 심산, 2010). 이와 반대로 무슬림 아랍인들이 아랍민족주의의 확산에 더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 시각으로는 Rashid Khalidi, *The origins of Arab nat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참조.

76)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유명해진 1차 세계대전 당시 후세인의 아랍 독립운동은 실제로 영국에 의해 적극적으로 주도되었던 반란일 뿐, 대다수의 아랍인들에게는 호응을 받지 못했다. 데이비드 프롬킨, 이순호 역, 『현대 중동의 탄생』, (서울: 갈라파고스, 2015) 참조.

IV. 근대 중동의 지역질서

변화에의 적응과 생존을 위한 긴 19세기를 거친 오스만제국은 결국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해체되고, 아나톨리아 반도에는 근대민족국가인 터키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일군의 사회들로 남게 된 아랍 지역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주도 하에 여러 국가들이 건설되었으며, 오랫동안 영위되어 온 이슬람 질서가 약 3세기에 걸쳐 해체되면서 근대 국가체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제로서의 이슬람과 개별 집단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차이를 유지하게 하는 사회 구조의 기본 형태는 이슬람세계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18-19세기를 거치면서 손상되었고, 근대국가체제의 수립을 통해 완전히 과거의 유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근대적 국제체제는 진공상태에서 생성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근대적 원리의 주입 그 자체와 별개로, 그것이 자리 잡아 작동하는 방식은 역사적인 경험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단히 말해 오늘의 중동은 1) 오래된, 지역 고유의 전통(age-old indigenous, local tradition)과 2) 19-20세기에 걸친 오스만 제국 후기의 규칙들 3) 그리고 20세기의 유럽 제국주의의 사실상의 식민통치의 경험이 축적,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⁷⁷⁾

그리고 지역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정치현상은 이러한 바탕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개별 사건마다 각각의 비중을 일별하여 밝히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구조 내부에서 개별 국가의 행동 양상은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지리적 위치, 정치체제의 특성뿐만 아니라 특정 사안에 관한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각기 상이한 압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유산은 각 정치 단위와 단위 간 행동 규범뿐만 아니라 정체성 및 이익의 구성 등에서 힘을 발휘하여 글로벌한 차원의 역동과 구분되는 지역 국제정치의 독특한 맥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77) A. Nuri Yurdusev, 2009, pp. 79.

것이다.

일례로 국제정치 전체를 규정했던 미소의 냉전구도 속에서도 중동의 지역정치는 단순히 강대국 간의 갈등의 산물로서가 아니라 지역 자체의 역동에 의해 주로 규정되어 왔다.⁷⁸⁾ 냉전기 중동 아랍세계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들은 냉전의 영향력보다는 지역 내부에 존재하는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여기서 냉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대립이었다기보다, 민족주의 세력과 왕정 국가 간의 대립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질서와는 무관하게 지역 차원의 행위자들의 관념과 행태 및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맥락이 존재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이 곧 중동의 국제정치가 전형적인 근대국제정치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동 역시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근대국제체제가 물리적으로 자리 잡아 그 안에서 각 단위들은 근대 국가 간의 정치를 해나가고 있으며, 이는 기존 이론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국제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여전히 서구 이론에서 가정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띤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해보겠지만, 이들 국가들은 단위의 차원에서 완전한 근대국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의 관계 역시 근대적 의미의 주권 규범만으로 결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78) 이러한 주장에 관해서는 Malcolm H. Kerr, *The Arab Cold War: Gamal Abd al-Nasir and His Rivals, 158-1970*, 3rd ed(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Fred Halliday, *The Middle Ea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ower, Politics and Ide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참조. 반면, 이러한 주장과 반대로 지역의 독자성보다 미소경쟁의 틀에서 중동 지역을 분석한 시도로는 Bassam Tibi, *Conflict and War in the Middle East, 1967-91: Regional Dynamic and the Superpower*(London: Palgrave Macmillan, 1992). 를 참조할 것.

1. 중동 지역 체제의 구조적 특성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서구의 국제정치이론이 중동의 국제정치를 온전히 설명해오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동시에,⁷⁹⁾ 이론적 차원에서 중동지역체제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들은 대체로 현실주의적 설명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복잡한 어떤 것’이 지역 정치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⁸⁰⁾ 그리고 그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대표적인 시도로는 힌네부쉬와 에흐테샤미의 연구(Hinnebusch and Ehteshami, 2014)가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근대 국가를 건설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동지역체제를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동 국가의 행태는 구조적 현실주의가 상정하는 체제 수준의 동학보다 다른 차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국제정치이론의 성과들을 활용하는 ‘복합적 현실주의(complex realism)’이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⁸¹⁾ 중동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전 현실주의, 역사사회학, 영국학파의 이론을 더해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설명

79) Gregory Gause III, "Systemic Approaches to Middle East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 (1998), pp. 11-31; Andrea Teti, "Bridging the gap: IR, Middle East Studies and the disciplinary politics of the area studies controvers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3, No. 1, (2007), pp. 117-145; Mortan Valbjørn. "The Meeting of the Twain-Bridging the Gap between Middle East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38, No. 2, (2003), pp. 162-173; Mortan Valbjørn, "Toward a 'Mesopotamian Turn': Disciplinarity and the Study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Journal of Mediterranean Studies*, Vol. 14, No. 1-2, (2004), pp. 47-75.

80) Anoushiravan Ehteshami and Raymond Hinnebusch, "Foreign Policymaking in the Middle East: Complex Realism" in Louise Fawcett (ed). 2013.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225-228.

81) Raymond Hinnebusch and Anoushiravan Ehteshami, *The Foreign Policies of Middle East States 2nd*, (Boulder, Colorado : Lynne Rienner Publishers, 2014), pp. 1-3.

력을 높임으로써 '3세계 국가'들의 행태를 설명하고자 했던 Ayoob(2002)의 연구 역시 비슷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⁸²⁾

여기에 대해 Valbjørn(2003)과 Teti(2007)는 이러한 시도들이 지역의 맥락을 심층 기술하는 동시에 보편이론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서로 다른 메타 이론적 가정에 기초해있는 이론들을 단순히 조합함으로써 일종의 '절충주의(pick-&-mix eclecticism)'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⁸³⁾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나 주권, 무정부상태와 같은 국제정치이론의 개념들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⁸⁴⁾ 비슷한 맥락에서 가우스(Gregory Gause) 역시 중동 국제체제의 구성 요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규칙성 혹은 그 안에서 생기는 변화들을 규정하려는 작업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정부상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⁸⁵⁾ 본 장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II, III장에서 살펴본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근대 중동 국제체제의 주권단위와 무정부상태에 대해 재 고찰함으로써 지역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불완전한 주권 단위: 근대적 영토 국가

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아랍 지역들은 유럽 열강들의 이해에 따라 분할되어 사실상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1940년대를 기점으로 독립하여 근대적 주권 국가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근대국가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정치적 공동체의 파괴 및 흡수의 과정을 동반한 것이었다. 특히 지역의 역사나 지역 주민들

82) Mohammed Ayoob, "Inequality and Theoriz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ase for Subaltern Realism,"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4, No. 3 (Autumn, 2002), pp. 27-48.

83) Valbjørn, 2003, pp. 169.

84) Valbjørn, 2004, pp. 61-62.

85) Gause III, 1998.

의 소망과는 무관하게 국경선이 설정되었던 바, 새로 탄생한 국가들은 매우 취약하고 인공적인 국가에 불과했다.⁸⁶⁾ 이전까지 오스만 제국 내 아랍 지역은 주로 종교적 공동체들로 구성된 지방들(provinces)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크게 이집트, 요르단-시리아-레바논을 아우르는 대 시리아 지역과 이라크, 부족 단위들로 쪼개져 있던 아라비아 반도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전통적인 경계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오직 영국과 프랑스의 이해에 따라 국경선이 획정된 것이다.

더불어 새롭게 생긴 정치단위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단위 의식 간에도 상당한 괴리가 존재했다. 앞서 Ⅱ,Ⅲ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슬람 세계의 국가(*dawla*)는 매우 느슨한 지리적 구획을 가지고, 종교에 따라 구분되는 일종의 ‘권역’⁸⁷⁾ 개념으로 유지되어 왔다. 영토성(territoriality) 개념의 발전 없이 이슬람 영역과 전쟁 영역의 이분법을 바탕으로 안과 밖, 아와 타의 관계가 확립되어 온 것이다. 오랜 역사 동안 같은 이슬람 세계 내에 수많은 국가들이 탄생, 소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권역은 단일한 정치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정치적·법적으로 독립된 국가나 통치자의 개념은 발전하지 못했다.⁸⁸⁾ 가장 가까운 예로, 오스만 제국의 경우 술탄을 중심으로 하는 계서적 통치가 이루어지기보다, 부족이나 종교 등에 기초한 공동체들이 개별적인 관습과 법을 유지하는 등 폭넓은 정치적 자율성을 누렸던 바 있다. 다시 말해 이슬람 세계는 국가이성이나 주권 등의 개념이 생성, 발전할 만한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신의 권위가 교와 속으로 양분되어 근대 이행을 거치며 교권에 대한 속권의 우위가 확립되고 영토군주가 독립적인 힘과 권위를 갖게 되었다. 반면 이슬람권에서는 초기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 시대

86) Mohammed Ayoob, *The Third World security predicament : state making, regional conflict,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Boulder : L. Rienner Publishers, 1995).

87)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 (서울: 이조, 2013).

88) Adam Watson,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Milton Park, Abingdon, Oxon: New York: Routledge, 1992), pp. 114.

부터 오스만제국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국가의 주권은 이론적으로 신에게 속해있었으며, 샤리아에 의해 통치되어야 했다. 신의 대리자이자 종교의 수호자, 움마의 통치자로서 ‘칼리파’의 존재가 바로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압바스 조의 멸망으로 공식적인 칼리파 지위가 사라지고, 19세기 오스만의 압둘 하미드 2세가 칼리파로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기 전까지 이슬람 세계에서 칼리파의 이름은 현창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정당한 통치의 근원으로서 이슬람법과 이슬람 군주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한편 샤리아 역시 다른 대안적 제도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특정한 영토체제나 통치 집단에 구애를 받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⁸⁹⁾ 따라서 세속적 권위와 영토성에 기반을 둔 근대 국가는 지역의 전통적인 국가와는 매우 이질적인 성격의 것이었으며, 여전히 이슬람 세계에서는 신으로부터 국가 통치의 권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멸망한 이후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는 ‘투르크’ 민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적 민족국가가 건설되어 정치적 권위에서 종교의 역할을 탈각시키는데 성공했다. 반면 아랍 지역은 이러한 과정을 갖지 못한 채 서구에 의해 주권국가 체제를 주입받으면서 과거와의 괴리를 스스로 해결할 시간이나 기회도 갖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혈통적 의미의 ‘민족’ 개념 역시 역사적 전통을 찾아보기 어렵다. 아랍 지역은 이슬람 이전에는 부족의 단위로 파편화되어 있었고, 이슬람 세계가 형성된 이후에도 작게는 부족이나 소규모 종교 공동체의 일원, 넓게는 움마의 일원으로서 별도로 아랍 민족의 관념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스만 제국 후기, 발칸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민족국가로서 독립을 달성하고, 투르크족 역시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을 시도할 때가 되어서야 아랍 민족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아랍 민족의 개념이 더욱 발전했을 때에는 이미 유럽 열강에 의해 이들을 가르는 경계가 획정되어 아랍 공동체와 영토적 경계의 부조화가 자리 잡았던 것이다.

결국 중동의 근대국가들이 어떤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 혈통적 특성이 아닌 오직 인공적인 영토적 경계에 기초해서 구획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민족국가(nation-state)라기보다, 영토국가(territorial

89) 호지슨, 이은정 역, 2006, pp. 188-189.

state)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인 국가의 존재양식 및 담론과 근대 국가의 존재 양식 간의 불일치에 의해 중동의 영토국가들은 내적 응집력과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단일한 이슬람 공동체와 통일된 아랍 국가에 대한 기억과 관념이 근대적 국가관념의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동의 근대 영토 국가들은 대내적 주권을 온전히 갖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는 중동 지역의 개인이나 국가 행위자의 정체성을 넘어 구조 전체를 규정하는 효과를 낳았다.

2) 중동 지역 체제의 작동

단위 차원의 문제는 곧 단위들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대적 질서의 작동은 각각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나, 불완전한 주권국가들의 존재로 인해 이러한 원칙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⁹⁰⁾ 국가주권 규범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대외적 평등, 대내적 최고성, 내정 불간섭, 영토의 불가침성을 들 수 있으나, 이들이 만들어내는 역내 관계에서 이러한 원칙은 쉽게 부정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중동 지역에서 국가들이 각각의 영토적 경계를 두고 경쟁하거나, 초국가적 공동체를 지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 타 국가의 국내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로 자주 등장했다.⁹¹⁾ 예를 들어 아랍 전체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아랍주의는 그러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국가들의 주권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하였다.⁹²⁾ 이러한 패턴은 역내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데,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걸프 위기 역시 이라크가 쿠웨이트와의 영토경계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촉발되었던 바 있다.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의 분류대로 말하면, 탈 영토적 이슬람 공동체 및 통일된 아랍

90) 전재성, “국제정치의 복합조직원리론으로 분석하는 남북관계,” 『세계정치』 Vol. 16 (2012), pp. 19.

91) Hinnebusch and Ehteshami, 2014, pp. 7.

92) Michael C. Hudson, *Arab politics: the search for legitimac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7).

민족의 표상 하에 아랍 국가들은 국내주권과 베스트팔렌 주권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⁹³⁾

물론 민족 공동체와 일치하지 않는 정치적 경계선이 비단 중동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아랍주의와 이슬람이 근대국가체제의 조직원리(organizing principle) 자체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비서구 지역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아랍주의와 이슬람은 평등한 주권 국가들로 이루어진 무정부적 체제를 뒤엎고, "아랍/이슬람 공동체에 공동으로 헌신하는 단위들의 위계적 체계(hierarchical system of superordinate and subordinate units)"⁹⁴⁾로 지역 국제체제를 재조직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⁹⁵⁾

한편 노블(Paul Noble)을 중심으로 하는 '몬트리올 학파'⁹⁶⁾는 중동 국제정치의 형성에 있어 국내적, 초국가적, 지정학적 요소들의 중첩을 강조하면서, 서로 다른 분석 수준들이 중첩된 현실을 주류 국제정치학자들이 무시해왔다는 점을 비판해왔다.⁹⁷⁾ 그리고 이러한 '중첩'은 레바논 내전의 사례처럼 국내적 행위자가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연대한다거나, 혹은 역으로 국가가 초국가적 행위자와 제휴하여 경쟁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동에서는 사실상 국내와 국제의 구분⁹⁸⁾이 흐려져, 연속적으로 배열되고, 이

93) Stephen D. Krasner,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94) Gause, 1999, pp. 26.

95) Gause, 1999, pp. 24-27.

96) Michael C. Hudson, "American Hegemony and the Changing Terrain of Middle East International Relations," in Bassel F. Salloukh and Rex Brynen, (eds.), *Persistent Permeability? Regionalism, Localism, and Globalization in the Middle East* (London: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pp. 163.

97) Bassel F. Salloukh, "Overlapping contests and Middle Ea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eturn of the Weak Arab Stat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a Changing Middle East*, POMEPS STUDIES, Vol. 16, (September 17, 2015), pp. 47.

98) 위커는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이 안과 밖의 이분법으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역동을 가지는 분리된 영역으로서 '국제(international)'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음을 지적한

에 따라 지역 질서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국지적(local) 차원이든, 국가적 차원이든, 국제적 차원이든 지역 체제 자체에 파급력을 갖는 매우 복합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관련하여 또 다른 예를 들면, 흔히 ‘제 3세계’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데에 국가-사회관계는 유의미한 분석수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데이비드의 전(全)균형(omnibalancing)론 역시 이러한 대표적인 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중동 지역에서 국가-사회 문제는 해당 국가에만 그 효과가 특정되지 않으며, 체제 전체에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아랍주의나 이슬람은 문화의 차원이나 개별 행위자의 정체성의 변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⁹⁹⁾

2. 규범과 정체성, 그리고 외교정책결정

(1) 아랍-이슬람 규범과 외교정책결정

단순 무정부상태라고 볼 수 없는 지역체제 속에서 아랍주의와 이슬람은 국가들의 행동규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바넷(Michael N. Barnett)은 아랍 국가들이 ‘주권과 통합 사이의 어딘가에서’ 행동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¹⁰⁰⁾ 바넷의 주장이 갖는 가장 큰 한계는 아랍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슬람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동의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술해 온 바와 같이, 이슬람은 오

바 있다. R. B. J. Walker, *Inside/Outside: International Relations as Polit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이러한 점에서 중동은 일반적인 국제체제를 설명하는 논리와는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99) Gause, 1999, pp. 22.

100) Barnett, 1996(a).

랫동안 이 지역을 관통하는 정체성의 근원이자 질서의 핵심이었다. 반면 아랍주의는 오스만 제국 말기부터 태동한 새로운 정체성 내지는 관념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1940년대 이후 아랍의 정치적 통합운동이 전개되면서 그 중요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비록 아랍 민족의 통합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러한 관념이 지역 정치 단위들의 행동을 추동하는 강력한 기제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아랍주의는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믿는 아랍 민족의 통일 국가 혹은 국가 연합’의 건설을 주요한 목표로 내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국가 역시 이슬람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바, 여전히 이슬람은 근대 이후의 중동에서도 단순히 문화적 요소를 넘어서는 정치적 가치 혹은 규칙의 근간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겠지만, 중동 아랍 국가들에게 중요한 타자였던 유럽 제국주의 세력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 아랍주의와 이슬람은 지역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데 사실상 같은 의미에서 혼용되어 왔다.¹⁰¹⁾ 그리고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랍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 단적으로 증명된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아랍세계에서 정당한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행위는 전체 아랍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후원에 힘입어 1948년 건국하였으며, 아랍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지역의 최대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 따라서 과거 제국주의 지배 시기부터 비롯된 이슬람과 범 아랍주의에 대한 열망은 지역 내부의 세력 불균형과 함께 규범의 문제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1978년 이스라엘과 단독 평화협정을 체결했던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이슬람 과격주의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고, 이집트 역시 아랍연맹에서 축출되는 등 오랫동안 아랍세계에서 제명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랍 국가들에게 있어 아랍-이슬람 규범은 주권 규범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이들은 각 개

10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개념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아랍-이슬람’ 규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별 주권국가 차원이 아닌 집합적 단위, 즉 아랍과 이슬람의 일부로서 행동하도록 제약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2) 다층적 정체성과 외교정책결정

중동 지역정치의 구조적 특성을 빚어내는 ‘아랍주의’와 ‘이슬람’은 동시에 국가들로 하여금 아랍 세계의 일원, 움마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였다. 또 과거의 유산과 별개로, 각 국가의 지도자들이 희박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제로 이를 활용하면서 이러한 정체성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¹⁰²⁾ 그리고 그 결과, 지역 국가들은 크게 근대국가, 아랍 민족, 움마의 일원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정체성들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다층적 정체성과 개별적 국가 정체성의 상호 작용 속에서 외교정책을 결정하게 되었다.¹⁰³⁾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국가의 첫 번째 목표는 생존과 이익 추구이며 이것이 외교정책 결정의 첫 번째 동인이 된다. 그러나 다층적인 정체성이 존재하는 매트릭스 속에서 ‘국익’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적 개념(problematic and contested)일 수밖에 없다.¹⁰⁴⁾ 여러 정체성 중 국가가 스스로를 어떤 정체성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어떤 ‘이익’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들은 주로 근대국가로서 이익과 위협을 설정하고 행태를 결정하는 와중에, 다른 여타의 정체성이 그러한 행태의 심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주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국가의 이익과 위협 자체를 구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때로는 근대 국가의 합리적 선택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내리

102) Al-Barghouti, 2008, pp. 107.

103) 이들 국가들은 아랍민족 및 무슬림 정체성 외에도 매우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을 동등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 연구들에서는 중동 국가들이 단지 특정 부족이나 종교, 종파(순나/쉬아 등)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Elie Kedourie, "The nation-state in the Middle East," *The Jerusalem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9, No. 3, (1987); Ghassan Salamé, "The Middle East: elusive security, indefinable region." *Security Dialogue*, Vol. 25, No. 1 (1994) 참조.

104) Hinnebusch and Ehteshami, 2014, pp. 7.

게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다층적 정체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보와 이익은 ‘무엇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무엇’ 혹은 ‘누구’의 것인지를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¹⁰⁵⁾

같은 맥락에서 빌긴(Pinar Bilgin)은 중동 지역의 안보가 비판적 안보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중동, 아랍 중동, 무슬림 중동, 지중해 중동의 4가지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다층적인 중동 안보의 속성을 살펴보고자 했다.¹⁰⁶⁾ 여기서 중동 안보가 무정부적 구조에서 형성되는 개별 국가의 안보를 의미한다면, 아랍 중동과 무슬림 중동의 안보는 각각 범-아랍 지역과 탈 지리적인 이슬람 공동체의 안보를 뜻하며, 어떤 공동체를 상정하느냐에 따라 위협의 속성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중동 국가들이 아랍-이슬람의 집합적 정체성에서 기인하는 연대의식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주권국가로서 가지는 각기 다른 이익 역시 존재하며, 그것들의 배합 역시 다르기에, 이러한 설명으로 국가의 외교정책결정을 모두 포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아랍 국가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아랍 혹은 이슬람의 대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받으며, 국익이 이러한 대의와 상충될 지라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대의에 부합한 것으로 위장(disguise)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¹⁰⁷⁾ 그리고 다음 장에서 살펴 볼 걸프위기에 아랍 국가들의 외교정책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

105) 베리 부잔, 레네 한센, 신옥희 [외] 옮김, 『국제안보론 : 국제안보연구의 형성과 발전』, (서울: 을유문화사, 2010) 참조.

106) Pinar Bilgin, "Whose 'Middle East'? Geopolitical inventions and practices of securit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8, No. 1 (2004): pp. 25-41.

107) Hinnebusch and Ehteshami, 2014, pp. 15.

V. 걸프위기의 지역정치

이 장에서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되었던 걸프위기 상황에서 전개된 지역 국제정치의 양상을 다룬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기존의 걸프위기 관련 연구들이 주로 주목한 당시 지역 정치의 모습은 그 전까지 지역을 규정하던 아랍의 정체성이 깨어지고, 개별 국가들의 정체성과 이익이 강화되어가는 과정이었다.¹⁰⁸⁾ 이 서사 속에서 아랍 국가들끼리의 문제해결이 모색되고, 실패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었으며, 이후 미군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맞아 아랍 국가들이 보인 각각의 반응들은 개별 국가 차원의 전략 혹은 선택의 문제로 설명되어왔다. 지역 내 각 행위자들은 ‘합리적’ 행위자이며, 걸프 위기의 각 국면마다 나타났던 이들의 외교정책결정 역시 개별 국가의 안보, 경제, 전략적 이익을 위한 ‘합리적’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이라크의 침공행위나 다른 아랍 국가들의 행태들에 대해 절반의 설명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지역 차원의 맥락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 아랍 세계에서 걸프위기는 아랍-이슬람의 규범 속에서 이해되었으며, 각 국가들 역시 그 안에서 자국의 이익을 설정하거나, 개별적 국익을 정당화하였기 때문이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규범은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이라크에 대한 위협인식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였으나, 각 국가들은 오히려 지역 차원의 규범 속에서 이라크의 행위를 인식하였다. 따라서 다국적군에 합류 혹은 거부하는 행위 역시 단순히 ‘이라크에 대한 지지 혹은 응징’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더불어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갈등은 석유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인 동시에 그 기원이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문제이기도 했다.

108) Barnett, 1996(a); 1996(b); Sayigh, 1996; Bassam Tibi, "From Pan-Arabism to the Community of Sovereign Arab States: Redefining the Arab and Arabism in the Aftermath of the Second Gulf War," in Michael C. Hudson (ed.), *Middle East Dilemma: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Arab Integration*, (London: I.B.Tauris, 199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걸프위기 당시의 지역정치를 IV장에서 살펴본 지역 국제체제의 틀 안에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우선 1절에서는 걸프위기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대두되었는지,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했는지 살펴본다. 이어 2절에서는 아랍 국가들 간의 대화를 주도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이 아랍 솔루션의 실패 이후 각기 어떤 외교정책노선을 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배경과 과정에서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1. 걸프위기의 대두와 아랍 세계의 반응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걸프위기는 1990년 8월 2일 새벽,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기습적으로 침공하면서 촉발되었다. 이라크 군의 기습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쿠웨이트는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라크군은 당일 저녁 쿠웨이트 시를 완전히 점령했다. 사건 직후 쿠웨이트 왕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해 망명정부를 수립했고, 그로부터 6일 후 이라크 정부는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속주(屬州)로 병합한다고 발표했다.

이라크의 공격은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세계를 놀라게 했으나, 양국 간 갈등의 신호나 조짐이 이전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분쟁의 역사는 20세기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¹⁰⁹⁾ 이는 이라크가 쿠웨이트의 존재와 양국 간 국경의 정당성을 거부해왔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쿠웨이트 지방은 오스만 제국 내 이라크 바스라(Basra) 주의 일부였으나, 1899년 영국의 보호령에 속하게 되었고, 1961년이 되어서야 보호령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가 되었다.¹¹⁰⁾ 게

109)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영토적 기원과 이를 둘러싼 상세한 분쟁의 역사에 관해서는 Richard Schofield, *Kuwait and Iraq: Historical Claims and Territorial Disputes*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1) 참조.

110) 그러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부분은 유목부족들이었기 때문에 쿠웨이트가 바스라 주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국경지대는 상당히 느슨한 형태로 유지되었다.

다가 1923년, 이라크-쿠웨이트 국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영국은 이라크의 페르시아인 걸프지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경계보다 북쪽으로 더 많은 영토를 쿠웨이트에 할당했던 바 있다.¹¹¹⁾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라크는 파이잘 1세(Faysal ibn al-Husayn)의 재위기(1883-1933) 때부터 국경선에 대한 의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1963년까지 쿠웨이트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부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에게 있어 쿠웨이트 합병은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었다.¹¹²⁾ 그러나 쿠웨이트는 19세기에 이미 개별적인 정치공동체를 형성하여 1871년, 제국 중앙정부에게 바스라 주와 분리된 독립적인 지방(wilayat)으로 인정받았으며, 1899년부터는 영국의 보호 하에서 사실상 독립 상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라크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더불어 부비얀(Bubiyan)과 와르바(Warba) 섬 역시 양국의 지속적인 갈등 요인 중 하나였다. 섬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는 1913년 영국과 오스만제국 간 협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바스라 주와 쿠웨이트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오스만 제국은 부비얀과 와르바 및 일부 섬들을 포함하는 경계를 요구하는 영국과 셰이크 무바라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당시의 국경선(frontier line) 합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영토의 분할(demarcation)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섬들을 둘러싼 보다 직접적인 갈등은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중 발생했다. 전쟁 중 이라크는 파오반도 탈환을 위해 두 섬에 군사시설 건설을 허가해줄 것을 쿠웨이트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쿠웨이트는 자국의 영토 내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과 전쟁이 끝난 이후

또한 공통의 문화적·역사적 유산과 기억은 차치하더라도, 양국의 경계에서 지속되었던 이주, 결혼 등의 활발한 사회활동들로 인해 이 지역은 다른 아랍 지역들에 비해 서로 사회적 유동성이 높은 편이었다. Majid Khadduri and Edmund Ghareeb, *War in the Gulf, 1990-91: the Iraq-Kuwait conflict and its implic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4-5.

111) Cleveland and Bunton, 2004, pp. 479.

112) 게리 R. 헤스, 임윤갑 역, 『전쟁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 (서울: 북코리아, 2008), pp. 239.

이라크가 두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요청을 완강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¹¹³⁾ 전쟁 이후 두 섬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쿠웨이트의 판단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전쟁 중 이라크 유일의 수출 항구였던 바스라 항구가 파괴되고, 샤트 알 아랍(Shatt al-Arab) 경제수로가 차단되어 이라크는 사실상 완전한 내륙국가로 되었기 때문에 부비얀, 와르바 섬을 이용한 무역항구 건설이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던 것이다.¹¹⁴⁾ 당시 이라크는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프라인에 의존해 원유를 수출했으나, 파이프라인은 상대 국가에 의해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이 상존했다. 따라서 이라크의 국가지도자들은 심해항(deep-water port) 건설이 가능한 영토를 확보하는 것에 국가경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특히 1980년부터 8년간 지속된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라크의 경제는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 직후 이라크에는 800억 달러의 외채와 약 2300억 달러에 달하는 전후 복구비용이 남아있었다. 또 1989년을 기준으로 원유 수출을 통해 얻는 수입이 약 130억 달러 가량이었으나, 이것으로는 전후 채무이자 납부, 국가 운영-특히 군사비 지출, 전후 복구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내 인플레이션 역시 40%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갚아야 할 부채만 60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사담 후세인은 이란에 맞서 걸프국가와 아랍 세계를 지켜낸 이라크의 희생을 강조하며 이들에게 부채를 탕감해줄 것과 전후 복구비용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일례로 1990년 6월, 이라크의 사둔 하마디(Sa'dun Hammadi) 부총리는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100억 달러의 긴급차관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우디는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고 쿠웨이트의 자베르 3세는 3년간 5억 달러 가량의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부채 탕감이나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양국의 국경선 획정을 조건으로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태도를

113) 기다 히데도, 오정석 역, 『THE GULF WAR 걸프전쟁: 역사적 전개와 전쟁수행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연경문화사, 2002), pp. 133.

114) 최성권, 2011, pp. 346.

취해, 후세인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¹¹⁵⁾

이러한 상황에서 두 국가의 갈등은 석유문제를 둘러싸고 정점에 달했다. 이라크로서는 피폐해진 국가 경제를 재건하고, 군사력을 정비하기 위해 막대한 오일 머니가 필요했던 바, 원유 가격의 인상을 원했다. 그러나 1988년 8월 29일, 이란-이라크 전의 정전협정이 발효되기 직전, 쿠웨이트와 UAE가 OPEC의 합의를 깨고 일방적인 원유 증산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원유 가격은 오히려 배럴당 21달러에서 11달러로 급락하게 되었다. 애초에 OPEC에서 합의된 쿠웨이트의 일일 생산 할당량은 103만 배럴이었으나, 당시 쿠웨이트는 하루에 2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⁶⁾ 상황이 지속되어 1990년 2월에도 원유 가격이 약 12달러에 머무르자, 이라크는 24일 바그다드에서 열린 아랍 협력회의에서 할당량 준수와 최소 18달러까지 석유가격을 인상할 것, 그리고 이라크에게 300억 불 상당의 용자와 공업시설 재건을 위한 지원금을 요청했으나 걸프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5월 3일, 아랍 정상회담에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원유 가격이 1달러 떨어질 때마다 이라크의 손실은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이라크에게 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쿠웨이트와 UAE의 행동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¹¹⁷⁾

여기에 더해 이란-이라크 전쟁 중, 쿠웨이트가 이라크-쿠웨이트 국경 중립지대인 루메일라(Rumeila) 유전에서 석유를 채굴한 것은 이라크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담 후세인은 1990년 7월 17일 혁명 기념일 연설에서 쿠웨이트가 1980년부터 ‘갈취’한 석유가 24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전쟁 중에 발생한 부채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¹¹⁸⁾ 원유 증산이 계속될 경우, 쿠웨이트에 대한 무력투쟁을 불사하겠

115) 히데도 2002, pp. 138-143.

116) 쿠웨이트가 석유증산을 추진한 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쿠웨이트 정부로서는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자체적으로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었을 뿐더러, 전쟁 중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파괴된 석유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17) Campbell, 1992, pp. 45.

118) Robert Springborg, “Origins of the Gulf Crisi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4 (December, 1990), pp. 230-231.

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부 아랍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위험한 정책은 이라크를 등 뒤에서 찌르는 독이 묻은 칼과 같다. 말만 가지고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¹¹⁹⁾

이러한 발언이 나온 몇 시간 후부터 7월 말까지 약 10만의 병력이 쿠웨이트 인근 국경에 결집하였고 8월 2일 새벽, 이라크는 오랜 영토 갈등과 부채탕감 거부, 석유가격 폭락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위해 쿠웨이트를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¹²⁰⁾

2) 아랍 솔루션의 모색과 좌절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라크가 쿠웨이트 국경을 넘은 직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는 단순히 쿠웨이트를 위협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¹²¹⁾ 그러나 국경지대에서 진군을 멈출

119) 히데도, 2002, pp. 145.

120) 이라크 군의 움직임을 포착한 쿠웨이트 정부는 국경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였으나, 실질적인 침공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사우디의 파흐드 국왕 역시 이란과의 남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이라크의 설명을 믿고 있었고, 7월 25일 바그다드를 방문한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 역시 무력행사를 할 계획이 없다는 후세인 대통령의 설명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

121) 아랍 국가들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오랜 갈등을 잘 알고 있었으며, 1990년 봄과 여름 동안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들은 아랍의 연대의식 속에서 양국이 협상을 통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걸프 위기 직전인 7월 3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파흐드(Fahd) 국왕은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주선하였으나, 여기서도 양국은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재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라크는 원유할당량 준수, 루메일라 유전 양도, 와르바/부비안 섬의 공동 소유라는 기존의 요구사항을 관철하였으며, 쿠웨이트 역시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이다. 당시 이라크 측 대표였던 알-두리('Izzat Ibrahim al-Duri) 혁명지휘위원회(Revolutionary Command Council: RCC) 부의장은 쿠웨이트의 태도가 매우 완고해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음을 본국에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RCC는 곧 쿠웨이트 합병을 위한 무력 사용을 결의하게 된다.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이라크는 불과 3시간 만에 수도인 쿠웨이트 시를 점령했으며, 셰이크 자베르 3세를 비롯한 쿠웨이트 왕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난, 그곳에서 망명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이 이라크의 돌발적인 행동을 즉각적으로 규탄했던 반면, 아랍 국가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변 국가들이 이라크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거나, 당시의 위기를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라크의 침공 당일 오후 요르단의 후세인 왕은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는데, 그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결국 무력을 사용했다는 데에 매우 분노한 상태였다.¹²²⁾ 사우디의 파흐드 국왕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으나, 세 지도자들은 모두 이 위기는 아랍 국가들의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서방 세력들의 개입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라크가 빠른 시일 내에 철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이들은 8월 5일에 긴급 정상회담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후세인 왕이 바그다드를 방문하여 이라크의 정상회담 참여의사를 타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아랍 국가들의 입장은 미국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당사자인 쿠웨이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지역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게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단순히 지역 수준의 분쟁이 아닌 미국과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었다.¹²³⁾ 이 지역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65%가 매장된 지역이었던 데다가,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유일한 패권으로서 위기관리능

122) Khadduri and Ghareeb, 2001, pp. 127.

123) Haim Bresheeth, "The New World Order," in Haim Bresheeth and Nora Yuval-Davis ed, *The Gulf War and the New World Order*, (London: Zed, 1991), pp. 243-256; Hooshang Amirahmadi, "Global Restructuring, the Persian Gulf War and the United States Quest for Leadership," in Hooshang Amirahmadi, *The United States and the Middle East* (Albany, 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pp. 363-400.

력을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걸프 지역의 석유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후세인이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¹²⁴⁾ 이러한 맥락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공조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프 위기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랍 국가들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었다.

훗날 후세인 왕의 인터뷰에 따르면, 8월 2일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은 아랍 국가들이 이라크의 침략에 즉각 비난하지 않는 데에 놀라움을 드러냈으며, 별다른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다는 데 불만을 표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후세인 왕은 이라크를 설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48시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¹²⁵⁾

48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후세인 왕은 8월 3일, 사담 후세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 바그다드로 향했다. 여기서 그는 사담에게 제다 회담에 참석하여 이라크군의 철수와 쿠웨이트 정부의 회복을 포함하는 위기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설득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는데, 회동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 이집트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라크의 무조건적인 철수와 즉각적인 쿠웨이트 정부 회복을 촉구했던 것이다. 후에 요르단 정부가 발행한 백서에 따르면, 무바라크 대통령은 외교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집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하였다.¹²⁶⁾ 요르단은 이집트의 ‘배반행위’가 사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했으나, 이집트가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었다.¹²⁷⁾ 무산된 정상회담의 성사가 가져왔을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성

124) 헤스, 2008, pp. 220.

125) Haykal's interview with King Husayn, (April 28, 1991); see Haykal, Mohammed Hassnein, 1992, Harb al-Khali [The Gulf War], pp. 382-384; Khadduri and Ghareeb, 2001, pp. 128에서 재인용.

126) The government of the Hashimite Kingdom of Jordan, White Paper (Amman, 1991), pp. 4-5. Khadduri and Ghareeb, 2001, pp. 128에서 재인용.

127) Campbell, 1992, pp. 60.

명이 발표된 이상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1991년 1월 13일에 있었던 UN사무총장 페레스 데 쿠에야르(Perez de Cuellar)와 가졌던 회담에서 후세인 대통령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실패했던 긴급정상회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상회담을 소집하는데 동의했으며, 그 곳에서 아랍 지역 내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사우디와 이집트의 태도 변화로 회담은 취소되어 버렸고, 그들은 미국과 함께 사우디 영토에 군대를 배치하는 데 동의해버렸다. 그렇게 우리는 아랍 솔루션을 위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¹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국가들끼리 위기를 해결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은 8월 10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주도한 것은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의 야세르 아라파트(Yasir 'Arafat) 의장이었다. 이들은 바그다드와 각 아랍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으며, 이라크가 참여하는 아랍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파흐드 왕과 무바라크 대통령은 점차 이라크의 자발적인 쿠웨이트 철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굳히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8월 7일 GCC의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UAE) 외무장관들은 제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세운 정부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라크는 빠른 시일 내에 쿠웨이트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랍 국가들 간의 입장 차는 8월 10일 카이로에서 개최된 아랍 연맹의 긴급 정상회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무바라크 대통령의 주도로 열린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 간의 여러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쿠웨이트의

128) “A Bitter Cup of Coffee in Baghdad,” The Independent, 14 February 1991. Campbell, 1992, pp. 59-60에서 재인용.

주권 회복을 골자로 하는 7개항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규탄하고,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승인하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랍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¹²⁹⁾을 담고 있었다. 회담에 참석한 20개국 중 12개국(GCC 5개국, 이집트, 모로코, 레바논, 시리아 등)은 결의안을 지지했으나, 리비아와 PLO는 반대, 알제리와 예멘은 기권, 요르단과 수단, 모리타니는 유보적 견해를 표명했다. 이 때 드러난 각국의 입장 차이는 아랍세계의 분열과 아랍 국가들끼리의 외교적 해결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주도하였으며, 걸프위기는 전쟁으로 향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3) 걸프위기의 지역적 의미

아랍 세계에서 이라크의 침공이 ‘쿠웨이트의 주권을 침해하는 만행’ 혹은 ‘국제규범의 명백한 위반행위’로만 해석되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게 가해자인 사담 후세인은 “아랍의 히틀러” 또는 “무자비한 독재자”였으며, 이라크와의 전쟁은 곧 “흑과 백, 선과 악”의 대결이었다.¹³⁰⁾ 그러나 아랍세계에서 걸프위기는 이러한 해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었다. 당시한 이집트 외교관의 발언은 당시 아랍인들이 느끼던 감정의 일면을 보여 준다. “침략행위 자체는 (잘잘못이 분명한) 흑백 문제이므로, 우리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침략의 동기는 단순히 흑백문제로 취급할 수 없다.”¹³¹⁾ 아랍인들이 이렇게 걸프위기에 대한 ‘양가감정’¹³²⁾을 갖게 된 것은 국가의 탄생 배경이나 지배가문의 정통성, 국

129) 그러나 이 조항이 곧 아랍 연합군의 결성 및 파병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당시 결의안은 기본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국가들에게만 구속력을 가졌으며, 파병 여부 역시 전적으로 개별 국가의 자율적인 선택에 달려 있었다. 『한겨레』, “아랍권, 이라크 제재 이견”, 1990년 8월 12일, 1면.

130) Theodore, 1992.

131) Hiro Dilip, *Desert Shield to Desert Storm: The Second Gulf War* (New York: Routledge, 1992), pp. 101.

132) Cleveland and Bunton, 2004, pp. 505; Daniel Heradstveit and G. Matthew

경의 획정 등의 측면에서 걸프국가들이 서구의 이해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통한 수입이나 사회복지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¹³³⁾ 한편 쿠웨이트는 원래 이라크의 일부라는 주장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는 “쿠웨이트는 (이라크라는) 나무의 한 가지이다.” 라는 표현으로 대표되었다.¹³⁴⁾

이러한 가운데 이라크의 침략을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규정한 것은 당사자인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오히려 아랍 세계 전반에서 걸프위기와 관련된 여론은 국가마다 저마다의 비중은 달랐지만, 1) 국가주권 원칙의 침해와 회복 2) 제국주의 세력 및 부패한 정부의 청산 3) 아랍 세계 내 부의 재분배 4) 아랍 영토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 문제 5)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세력에 대한 저항 등 매우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있었다.¹³⁵⁾

걸프위기가 이처럼 다양한 사안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된 데에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지역 내부 차원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인티파다(Intifada)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가고 있었던 데다, 지구적 차원에서는 소련의 붕괴라는 질서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아랍인들에게 냉전의 종말은 결코 환영할만한 사건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악몽에 가까웠다.¹³⁶⁾ 이들에게 있어 미국의 패권은 곧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패권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

Bonham, "Attribution Theory and Arab Images of the Gulf War," *Political Psychology*, Vol. 17, No. 2 (June 1996), pp. 272.

133) 일례로 당시 요르단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였던 무스타파 하마르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아랍인들은 쿠웨이트의 사바 왕가가 다른 페르시아 만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서방의 꼭두각시이며 마땅히 옹호해야 할 아랍의 이해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겨레』, “아랍권서 눈총 받는 쿠웨이트 왕가”, 1990년 8월 7일 6면.

134) Khadduri and Ghareeb, 2001, pp. 122.

135) Shibley Telhami. "Arab Public Opinion and the Gulf Wa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8, No. 3 (Autumn 1993). pp. 448.

136) Shibley Telhami, "Middle East Politics in the Post-Cold War Era" in George W. Breslauer, Barry Kreisler, and Benjamin Ward, eds., *Beyond the Cold War: Conflict and Cooperation in the Third World* (Berkeley, Calif: IIS, 1991).

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감 그리고 반미감정이 지역 전체에서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에는 소련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이주 행렬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은 아랍 세계의 불안감과 분노에 그야말로 불을 붙인 격이었다. 이전까지는 사담 후세인이 같은 아랍 국가를 무력으로 침입한 일에 대한 분노와 쿠웨이트에 대한 동정심 역시 일정 정도 공감을 얻고 있었으나, 미국이 등장함과 동시에 걸프위기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아랍 대 미국의 구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많은 아랍인들에게 미국의 개입은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으며, 아랍 세계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이들에게 이라크의 행위를 규탄하는 UN 결의안 채택은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점령지에서 철수하라는 UN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에는 침묵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행태는 극도의 반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¹³⁷⁾

따라서 미국과 걸프 산유국들에 대한 사담 후세인의 공격적인 레토릭은 아랍 대중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가 쿠웨이트 침공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건 간에, 공격의 성패에 대한 계산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후세인은 걸프 위기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냉전의 종식은 곧 아랍의 재앙¹³⁸⁾이며, 아랍의 공동행동을 통해 미국-이스라엘 동맹으로부터 석유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파해왔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쿠웨이트의 저유가 정책은 서구의 소비자들과 석유의 혜택을 나눔으로써 미국-이스라엘 동맹에 참여하고자 하는 배반행위라고 비판해 왔던 것이다.¹³⁹⁾ 또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후에도 그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시작되면 화학무기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주장하거나, 이라크군 철수의 선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를 제시하는 등, 아랍 대 미국의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걸프위기 사이에는 어떠한 개연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아랍 대중들에게 그러한 설명은 별다른 설득력을 가지지

137) 미국은 1972년부터 1989년까지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과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를 촉구하는 UN 결의안 28건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138) 최성권, 2011, pp. 347.

139) Cleveland and Bunton, 2004, pp.479.

못했다. 오히려 사담 후세인은 미국에 맞서 아랍세계를 통합시키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 ‘새로운 살라딘’ 내지는 ‘새로운 나세르’로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으며, 아랍 세계 내에는 걸프위기의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이라크의 패배가 아랍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공공연하게 퍼지게 되었다.

2. 아랍 솔루션 이후 주요 국가들의 외교정책결정

8월 10일 아랍연맹의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아랍 국가들은 단일한 아랍으로서의 외교적 해결을 사실상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각기 다른 노선을 걷게 되었으며, 아랍 솔루션을 주도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역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아랍연맹의 결의안 투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가 초기의 입장을 선회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에 합류했던 반면, 요르단은 아랍 솔루션이 무산된 이후에도 다국적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때 다국적군 합류에 동참/거부한 양 진영은 모두 각기 다른 의미에서 일탈적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걸프 위기 전까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 상황에서는, 아랍 세계 전체에서 감수해야 할 비난과 압력 때문에 각 국가들이 미국의 개입을 최대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사우디와 이집트의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당시 걸프위기에 대한 지역 내부의 전반적 인식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정이 국내적으로 수용되었던 것 역시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요르단의 선택 역시 여러 가지 위협과 손실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 계산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외교정책 간 편차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각각의 외교정책결정 과정에서 아랍-이슬람의 정체성과 규범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사우디아라비아

앞서 간략히 설명했던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건 직후 제다에서 아랍 국가들 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시하는 등 아랍 솔루션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집트가 이라크에 대한 비난성명을 낸 이후부터 아랍솔루션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우디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의 병력이 집결해 있는 상황에도 점차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8월 8일, 걸프지역으로의 병력전개를 발표했다. 이는 지상군의 파병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군의 본토 진입을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사우디는 외국 군대의 영해와 영공의 진입은 허용하였으나, 영토만큼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기조를 뒤바꾼 상당히 전격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1) 전통적 외교노선과 복합적 위협인식

이러한 결정은 걸프위기로 인해 사우디가 상당한 안보 위협을 느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이자 중동 지역 최대의 군사대국인 이라크가 페르시아 걸프 만으로 진주한 것은 사우디에 위협으로 인식될 만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우디는 1989년 이라크와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데다, 이라크군이 사우디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¹⁴⁰⁾ 파흐드 국왕은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¹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으며, 사우디로서는 자력을 통한 영토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미국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

140) Campbell, 1992, pp. 60.

141) Khadduri and Ghareeb, 2001, pp. 131.

한편, 미국으로서는 이라크를 굴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는 것 역시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였다. 만약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손쉽게 이라크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논의하기 이전부터 미국은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지상군 파견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사우디 점령의 서막일 뿐이며, 사우디의 병력으로는 이라크의 공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사우디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우디의 전통적으로 견지해온 외교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냉전 시대 동안 미국과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러한 관계를 가능한 한 수면 위로 노출시키지 않고자 하는 자세를 고수해왔다. 따라서 공공연한 해군이나 공군지원에도 난색을 표해왔던 바, 이슬람 성지가 있는 사우디 영토에 이교도인 미군이 진입하는 것은 파흐드 왕으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¹⁴²⁾

IV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대다수의 아랍 국가들은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정당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매우 권위적인 통치방식을 고수하거나 이슬람 혹은 아랍 정체성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왔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사우디는 막대한 석유수입을 배분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구매’하는 지대국가(rentier state)이지만¹⁴³⁾ 동시에 이슬람, 와하비즘(Wahhabism), 사우드가문의 정통성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내러티브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정체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보장받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⁴⁴⁾ 따라서 이슬람은 정체성의 근원이자 역사적 유산, 국가 기구(state apparatus) 및 통치의 근간 등으로 사우디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국제적 사안을

142) 히데도, 2002, pp. 199-200.

143) 지대국가론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Beblawi Hazem and Giacomo Luciani (eds.), *The Rentier State*, (London: Croom Helm, 1987). 참조.

144) Madawi Al-Rasheed, "Political Legitimacy and the Production of History," in Martin G. Lenore ed, *New Frontiers in Middle East Security*, (New York: St. Martin Press, 1999).

인식하고 다루는 것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곧 외교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슬람에 의해 국익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슬람은 사우디를 둘러싼 국제공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의 국익을 설정하는 잣대의 역할을 한 것에 가까웠으며, 이 때 사우디는 이슬람 영역과 국제영역으로 이분되는 전통적인 이슬람 세계의 국제 공간 인식을 거의 그대로 고수해왔다.¹⁴⁵⁾

따라서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의 요청과 자국의 군사적 안보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미국의 개입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서 있었다. 당시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계뿐만 아니라 서구식 교육을 받은 자유주의자들까지 비 무슬림 교도들인 다국적군이 사우디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¹⁴⁶⁾ 정당성의 위협 역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걸프위기 당시 사우디는 단순한 군사적 안보 불안정보다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아랍-이슬람 규범의 재해석을 통한 외교정책결정

이처럼 사우디는 걸프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면서도 이교도인 미국의 개입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모호한 입장에 처해있었다. 특히 미국의 요청이 지속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역 국가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초의 결정을 고수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졌다.

파흐드 국왕이 결정을 유보하는 사이 부시 대통령은 아랍 국가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단독으로 행동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사우디를 압박했다. 미국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사우

145) Bahgat Korany, "Defending the Faith: The Foreign Policy of Saudi Arabia," in Bahgat Korany and Ali E. Hillal Dessouki (eds.), *The foreign policies of Arab States: The challenge of change*. (Boulder : Westview Press, 1991), pp. 249.

146) Lenore, 1999, pp. 11.

디마저 이라크의 손에 넘어갈 경우, 걸프 지역 전체가 이라크의 영향력 하에 놓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협에 빠트릴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당시의 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던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Dick Cheney) 국방장관,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국가 안보보좌관과 달리, 비교적 유보적 태도를 취했던 콜린 파월(Colin Powell) 합동참모의장도 사우디 방어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다. 미국 행정부 내에 가능한 한 빨리 사우디에 대한 방위작전을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곧바로 주미 사우디 대사였던 반다르 빈 술탄(Bandar bin Sultan) 왕자와의 회담을 통해 미국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파흐드 왕에게 직접 군대 파병을 요청하기 위해 8월 6일, 국방장관을 리야드로 파견하기에 이른다.

같은 시기, 사우디 왕가 내부에서는 어떤 이교도 군대도 사우디 영토 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전통적 입장과 국가 안보를 위해 이는 불가피한 문제라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사우디로서는 이라크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미국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도 없었고, 노골적으로 반 이라크 전선에 합류하여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라크가 사우디 국경 근처까지 군대를 진출시키고 있으며, 몇 차례 국경을 침범해왔다는 사실이 미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결국 국가안보와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이들의 주둔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힘을 얻게 되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망명해 온 쿠웨이트 왕가 또한 이라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사우디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교도 군대가 성지에 들어오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고 올라마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회의 끝에 올라마들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할 때, 무슬림이 아닌 베두인들을 고용해 안전을 도모했다는 하디스를 들어, 성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군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샤리아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¹⁴⁷⁾ 위기 상황에서는 수단이나 방법보다 이슬람을 수호하는 목적

자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동시에 리야드를 방문한 체니 장관은 미국이 사우디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만을 투입할 것이며, 위기가 해소 되는대로 곧바로 철수할 것이라고 파흐드 국왕을 설득했다. 결국 이라크의 강경한 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설득에 힘입어 파흐드 국왕은 미국의 방어군 배치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군대를 파견해줄 것을 미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사우디의 결정은 결론적으로 “미국이 이미 제공하기로 결정되었던 도움”¹⁴⁸⁾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우디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일례로 국왕은 9월 9일,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여 사우디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는 오직 방어적 목적만을 가지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가 요청하면 즉각 철수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다음날인 10일에는 메카에서 이슬람회의기구(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이슬람 국가를 지키기 위해 외국군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이슬람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외국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끝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 다수는 미군의 개입에 우려와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사담 후세인의 침략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인 성지의 수호자이자 아랍 세계의 강대국이라는 위치 속에서 아랍 솔루션을 모색하였으나, 미국의 설득과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맞서 그 어떤 시기보다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이 얼마간 형성되어 미군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었던 것도 이러한 선택에 상당 부분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입을 허용한 것이 무조

147) 미군의 개입이 결정된 이후인 8월 13일, 최고 올라마 회의는 사우드 왕가의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히데오 2002, pp. 208.

148) John Bulloch and Morris Harvey, Saddam's war: The Origins of the Kuwait conflict and the international response, (Faber & Faber, 1991), pp. 139; Campbell, pp. 60에서 재인용.

건적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기에 사우디 정부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사우디 국내사회 뿐만 아니라 아랍, 나아가 이슬람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결국 당시 사우디의 결정은 아랍-이슬람 규범을 재해석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이집트

아랍솔루션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을 소집하여 이라크의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적인 반 이라크 전선과의 공조를 형성할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었다. 이집트는 아랍 국가들 중 가장 먼저 군대를 소집하여 긴급정상 회담 직후 사우디 방위를 위한 군대를 파견하였다. 또 미 항공모함의 수에즈 운하 통과를 허가하였으며, 그 후로 총 3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파병하여, 다국적군에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한 아랍 국가가 되었다.

(1) 걸프위기 상황에 대한 전략적 계산

이는 사건 직후 사우디, 요르단과 아랍 솔루션을 모색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결정이었다. 사실 이집트의 입장 변화는 8월 4일,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과 사담 후세인의 대화 결과가 발표되기 전 이라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서 처음 나타났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집트와 요르단 간에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나 무바라크 대통령에 따르면, 이집트는 요르단과 대화에 대한 기본 원칙이 달랐다. 이집트는 아랍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무조건적인 철수와 쿠웨이트의 주권 회복을 전제하고 있었으나, 요르단은 그러한 원칙 없이 이라크와의 대화에 임했다는 것이다.¹⁴⁹⁾ 그러한 상황에서 아랍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고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무바라크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라크의 조건 없는 조속한 철수만이 미국을 설득하고 역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

149) Freedman and Karsh, 1993, pp. 70-71.

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당시 무바라크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가 아랍 솔루션에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집트가 미국과 아랍 국가들 간의 협력에 중간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편에 설 경우 국내외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과거 사다트 대통령이 재임 중 이던 1979년, 이스라엘과의 단독 평화조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아랍연맹에서 추방당했으며, 10년이 지난 89년 5월이 되어서야 연맹에 복귀할 수 있었다. 또 아랍에 대한 ‘배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시 사다트 대통령이 살해된 바도 있었다.

또 국가대외부채가 약 500억 불에 달할 만큼 국가경제 역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이 불발될 경우, 이집트가 겪게 될 경제적 타격 역시 적지 않았다. 당시 백만 명 이상의 이집트인들이 이라크와 걸프 지역에 살고 있었고, 갈등이 격화되면 이집트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수입이 급감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¹⁵⁰⁾

그러나 사실 걸프위기가 지리적 위치나 당사자 간 역학관계 면에서 사우디나 요르단만큼 이집트에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집트가 걸프위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아랍 세계에서 이집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 이집트로서는 아랍 국가들과의 갈등을 최대한 피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지역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외교적 목표였다. 이집트는 1989년 아랍 세계에 다시 복귀했으나, 20-30년 전과 같은 리더십을 확립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집트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걸프 위기를 통해 이라크가 지역 패권을 갖게 되는 상황을 깊게 우려하고 있었다.

(2) 아랍-이슬람 규범 수호를 위한 다국적군 파병

이러한 계산 하에 이집트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하지 않는

150) 히데도, 2002, pp. 154.

한 연합군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으며, 다국적군에 약 3만 명 규모의 군대를 파병하게 되었다. 이집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역시 미국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다. 다국적군에 군대를 파병한 대가로 70억 달러에 달하는 이집트의 부채를 탕감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집트는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이집트가 또다시 아랍세계에서 고립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적인 반 이라크 여론과 발을 맞추면서도 같은 아랍 국가인 이라크를 적대시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¹⁵¹⁾ 무바라크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아랍 세계의 분열이 완전히 수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군대를 파견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에는 동의했으나, 이는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뿐,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과 아랍 국가들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¹⁵²⁾ 동시에 사우디로 파병된 이집트군의 한 사령관은 “이집트군의 목적은 사우디의 방위력 강화이며 공격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한 대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임무는 “메카와 메디나를 지키기 위한 것”¹⁵³⁾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집트의 많은 지식인들 역시 서구의 군사적 개입의 목적이거나 그러한 행위 자체를 이집트의 그것과 분명히 구별하여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다국적군 연합과 무관하게 미국은 이스라엘의 후원자이며 절대 아랍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집트는 현재 불가피하게 아랍 국가에 반하는 불편한 위치에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¹⁵⁴⁾

일반 대중들의 인식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는 여러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여론이 가장 분산되어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¹⁵⁵⁾ 정부의 결정에 대한 반발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파견 결정은 일부 학생들의 시위와 방화를

151) 히데도, 2002, pp. 196.

152) Freedman and Karsh, 1993, pp. 97-98.

153) 『한겨레』, “손발 안맞는 사우디파병 아랍군”, 1990년 9월 7일, 6면.

154) Heradstveit and Bonham, 1996, pp. 283.

155) Telhami, 1993, pp. 448.

촉발시켜, 이집트 역시 대중적 반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⁵⁶⁾

따라서 이집트는 대중적 설득을 위해 걸프 국가들의 후원으로 반 이라크 동맹 결성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책자를 발간했다. 이러한 책들은 사우디에서 이루어진 종교적 해석을 통해 이라크의 잘못을 밝히고 이집트와 사우디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집트 무프티인 무함마드 사이드 탄타위(Muhammad Sayyid Tantawi)의 *Al-Hukm al-Shar'i fi Ahdath al-Khalij* (Cairo: Dar al Ifta' al-Masriyya, 1990) 나, 만나 알-까탄(Manna' Al-Qattan)의 *Harb al-Khalij fi Mizan al-Figh al Islami* (Cairo: al-Zahra' lil-'loom, 1991)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¹⁵⁷⁾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자국의 이익과 별개로 같은 '아랍 형제국가'를 '배신'하는 이집트의 외교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아랍세계, 특히 이슬람의 성지를 수호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요르단

요르단의 후세인 1세는 여러 아랍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아랍 솔루션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철한 지도자였다. 따라서 그는 8월 10일 아랍연맹에서 채택된 결의안에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랍 솔루션을 포기하는 것은 연맹의 무책임한 태도이며, 이는 향후 아랍 국가들 간의 대화 단절, 나아가 아랍 질서의 규범적, 제도적 토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후세인 왕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아랍 솔루션이 사실상 실패한 후에도 그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여러 아랍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156) Haseeb, D. and M. S. Rouchdy, "Egypt's speculations in the Gulf crisis: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the opposition movements in Haim Bresheet and Nora Yuval-Davis ed, *The Gulf War and the New World Order*, (London: Zed, 1991), pp. 77.

157) Telhami, 1993, pp. 450

미국이 다국적군을 결성했을 때, 요르단은 거기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곧 다국적군이 아닌 이라크 편에 서기를 선택했다거나, 이라크의 행동을 지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후세인 국왕은 이라크의 침공이 옳지 못한 행동이며, 결론적으로 쿠웨이트 영토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었고, 쿠웨이트에 세워진 이라크 정부를 인정하는 것도 거부했다. 또 비록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UN의 이라크 제재안에 동참하기도 했다. 결국 요르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자제하고, 아랍 프레임 내에서 위기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당시 요르단의 입장은 엄밀히 말해 중립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제적 분위기에서 요르단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다국적군에 합류하거나 거부하는 것, 단 두 가지뿐이었으며,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요르단의 노력은 친 이라크이자 반미적 태도로 비추어질 뿐이었다.¹⁵⁸⁾

(1) 요르단을 둘러싼 다층적 위협

중립을 고수하면서 요르단은 정치적·경제적 고립, 군사적 침략 등 다양한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 우선 요르단은 이스라엘과의 암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걸프 위기로 촉발된 긴장이 군사적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지리적으로 이라크와 이스라엘 사이에 놓인 요르단으로서는 이라크가 먼저 이스라엘에 군사적으로 도발하거나,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행동을 문제 삼아 요르단을 통해 이라크를 침략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1999년 10월, 이스라엘의 샤미르(Yitzhak Shamir) 총리가 “요르단 내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이나, 외부세력의 요르단 영토 개입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긴장을

158) 후세인 왕과 요르단 정부의 관리들은 여기에 대해 종종 불만을 표했으며, 미디어 보도가 요르단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 및 국제 언론들은 후세인 왕을 “무책임한 이라크의 꼭두각시”로 묘사하곤 했던 것이다. Lynch, 1999, pp. 152-154.

고조시킬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¹⁵⁹⁾은 이러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또 요르단이 다국적군 파병을 거부한 후로 이스라엘 내에서는 요르단이 “이라크의 위성국가”가 되었다거나, “완전히 팔레스타인화” 되었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긴장관계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의 걸프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서안지구의 점령지에 인접한 지역에 수천 명의 규모의 군대를 배치하기도 했다.¹⁶⁰⁾

또 다국적군 참여 거부는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미국과의 관계에도 문제를 가져왔다. 후세인 왕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부시 행정부 역시 요르단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부시는 후세인 왕을 “이라크의 대변인이자 최악의 범죄자 중 한 명”¹⁶¹⁾이라고 지칭했으며, 요르단이 이라크의 프로파간다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한 상태였다.¹⁶²⁾ 미 의회에서는 “이라크의 동맹”인 요르단에 대한 제재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¹⁶³⁾

한편 요르단은 걸프전 발발 이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불안정을 겪고 있었으며, 1989년 내내 이와 관련된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걸프위기는 요르단에게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왔

159) Knesset session broadcast live on Israeli Radio, October 15, 1990 (FBIS-NES-90-200); Lynch pp. 144-145에서 재인용.

160) Alan Cowell, "Confrontation in the Gulf: With a Sense of Foreboding, Jordan Puts Troops on Alert," *The New York Times*, January 14, 1991, <http://www.nytimes.com/1991/01/14/world/confrontation-in-the-gulf-with-a-sense-of-foreboding-jordan-puts-troops-on-alert.html> (검색일: 2016년 11월 16일)

161) George Bush and Brent Scowcroft, *A world transformed*, (New York : Knopf, 1998), pp. 331.

162) Bush and Scowcroft, 1998, pp. 347-348.

163) 특히 당시 미국 의회와 언론은 요르단이 UN의 이라크 제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이 이끄는 MIF(Maritime Interception Force)는 요르단 아카바 항에서 요르단과 이라크 간의 무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미 국무성이 요르단의 제재안 이행을 요청한 이후에도 무역 거래가 계속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Sarah Graham-Brown, *Sanctioning Saddam: The Politics of Intervention in Iraq*, (London, New York: I. B. Tauris Publisher, 1999), pp. 67; 김병문, “걸프전시 요르단의 외교 정책: 쉘 균형(Omnibalancing) 시각,” *국제정치논총*, 41호 3권 (2001), pp. 399.

다. 요르단은 1970년대 말부터 이라크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1990년 9월부터 시작된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때문에 가장 큰 수출 시장을 잃는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1996년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이라크는 요르단 1년 수출액의 19%, 수입액의 12%를 차지했다. 또한 당시 이라크는 요르단에게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어, 국제 유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요르단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UN의 이라크 제재안으로 이마저 불가능해지면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¹⁶⁴⁾ 더불어 걸프국가에 머물던 해외노동자들이 대거 귀국하여 외화수입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 주권 규범과 아랍-이슬람 규범의 조응

다방면의 위협 요소가 존재하는 가운데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요르단의 행동은 결국 요르단이 어떤 아랍 국가보다 아랍 및 이슬람의 견지에서 자국의 정체성과 국익을 구성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브랜드(Laurie A. Brand)는 요르단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데 있어 규범의 존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같은 아랍-이슬람 국가인 이라크와 쿠웨이트 중 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규범의 영향력을 평가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⁶⁵⁾ 그러나 이는 아랍 세계 전체에서 걸프전이 가지는 의미와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명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아랍 세계에는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미국이 이스라엘을 더욱 적극적으로 비호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요르단은 여기에 대해 여타 지역 국가들보다 더욱 더 강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

164) 따라서 요르단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부채 상황의 일환으로 이라크의 석유를 계속 수입하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1991년 5월 요르단과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사이에 암묵적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Brown, 1999, pp. 67.

165) Laurie A. Brand, *Jordan's Inter-Arab Relations: The Political Economy of Alliance Maki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p. 287.

었다.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가장 인접해 있었으며, 요르단 국민의 60%가 팔레스타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된 문제는 요르단에서 전통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져 왔으며, 특히 걸프위기 직전에는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점령지 공격과 소련 거주 유대인들의 이주가 임박했다는 우려 역시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사담의 메시지는 요르단 내에서 큰 공감을 얻어 왔던 것이다. 레쉬(Ann M. Lesch)에 따르면, 요르단 내에서 사담에 대한 지지도가 유독 높았던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의 요르단 서안 및 가자지구 점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 인식되었다는 것, 둘째, 사담이 걸프위기와 팔레스타인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곧 이 문제가 중요한 외교문제로서 다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는 것, 셋째, 사담이 걸프국가들을 공공연하게 비난함으로써 그 동안 이들에게 쌓였던 분노를 자극했기 때문이었다.¹⁶⁶⁾

그러나 요르단에게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와중에도 걸프 위기는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주권의 침해, 아랍 세계의 부조리, 석유 수익의 재분배 등 복합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불만은 충분히 동조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를 무력으로 점령한 행동 자체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요르단에서 주권 규범의 준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¹⁶⁷⁾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일견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존재 때문에 가능했다. 요르단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서안지구(West Bank)를 상실했던 경험이 있는데다, 이후로도 이팔 분쟁의 영향 하에 가장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노출되었던 국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르단은 중동 아랍의 어떤 국가보다 주권 규범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요르단은 이라크의 이러한 행동이 이스라엘에게 새

166) Ann M. Lesch, "Contrasting Reactions to the Persian Gulf Crisis: Egypt, Syrai, Jordan, and the Palestinians," *Middle East Journal*, Vol. 45, (Winter, 1991), pp. 31-50.

167) Lynch, 1999, pp. 162.

로운 정당성을 제공해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일각에서 반 이라크 정서가 나타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요르단의 인식은 후세인 왕이 9월 19일, 모로코의 하산 2세(Hassan II), 알제리의 샤들리(Chadli Bendjedid) 대통령과의 회담 후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 잘 드러나 있다.

“요르단을 비롯한 아랍 정부들은 전쟁을 통한 영토획득을 용인할 수 없음을 후세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이는 원칙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원칙의 실패가 곧 이스라엘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강조는 인용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합병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이라크가 이 결정을 번복한다면, 이는 이라크 자신뿐만 아니라 아랍 전체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이라크가 지난 20년간 이룬 성취는 보존되어야 하며, 점차 벌어지는 아랍 국가들 간의 빈부 격차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라크의 점령이 패권이나 팽창에 대한 야심 때문이 아닌,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자기방어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 위기를 포함한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¹⁶⁸⁾

그러나 걸프위기에 대한 요르단 내의 다양한 해석은 특정시점을 계기로 하나로 수렴하게 된다. 바로 미국이 다국적군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언한 것이다. 이 때부터 그 동안 제기되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넘어 아랍에 대한 제국주의 세력의 개입이 걸프위기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

168) 여기에 대한 사담의 대답은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그는 위기의 배경에 대한 후세인 왕의 분석에는 동의하지만, 이라크가 해야 할 선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제시된 문제들은 이라크가 아니라, 문제를 제공한 다른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이라크의 행위가 원칙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쿠웨이트 문제를 논하기 전에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 White Book: Jordan and the Gulf Crisis, 1991: khadduri, and Ghareeb, 2001, pp. 129-130에서 재인용.

되었으며, 걸프위기의 대립구도는 더 이상 ‘이라크 대 쿠웨이트’가 아닌 ‘이라크 대 미국’ 혹은 ‘아랍 대 미국’의 구도로 전환되었다. 전술했던 것처럼 요르단은 걸프 위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인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바, 걸프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이니셔티브는 이라크에 맞서 석유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야세르 아라파트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되었다.¹⁶⁹⁾ 이라크의 무력침공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나, 이제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군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아랍 세계 전체를 위협에 몰아넣는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은 여기에 저항해야 할 당위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르단 내에서는 친 이라크, 반미 시위가 중동의 어느 국가보다 빈번하게 발생했다. 8월 초에는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이라크를 보호하자는 명목 하에 “민족의 군대(People's Army)”¹⁷⁰⁾를 결성하였으며, 암만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반미, 반 사우디, 반 이집트 시위가 격화되었다. 한편 요르단 국회 역시 이라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모든 무슬림들은 미국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⁷¹⁾ 이제 요르단에서 이라크에 대한 지지는 아랍 결속의 한 표현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¹⁷²⁾ 기존의 요르단 국내정치 구도에서 서안 출신의 팔레스타인 인들과 전통적 요르단 인들 간의 갈등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소였으나, 이 의제에 있어서는 양 집단 간의 거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져 요르단의 아랍 정체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요르단의 이익은 사실상 아랍의 이익과 동일시되었으며, 다국적군 합류를 거부하는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아랍-이슬람의 규범과 정체성이 독자적으로 요르단의 행동을 추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르단은 이라크와 미

169) Telhami, 1993, pp. 446.

170) 김병문, 2001, pp. 396.

171) 1989년 총선으로 선출된 당시 요르단 국회의 다수당은 이슬람 형제단(Muslim brotherhood)으로, 이들은 과거 사담 후세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미국의 개입을 계기로 반미, 친 이라크 노선을 취하고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김병문, 2001, pp. 397-398.

172) Lynch, 1999, pp. 151.

국의 군사적 행동을 모두 규탄하고, 대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의도뿐만 아니라 군사개입이라는 수단 자체에 대해 요르단이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아랍의 제도적 틀 속에서 아랍 세계 전반의 문제들에 관한 지역 차원의 새로운 규범을 세워야 한다는 요르단의 ‘아랍 솔루션’은 주권의 규범과 아랍-이슬람의 규범의 조응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3. 소결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 봤을 때, 걸프 위기 당시 아랍 국가들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아랍-이슬람 규범의 영향력 속에서 나름의 외교적 선택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랍 국가들은 무력침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 채 지역 차원의 외교적 해결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아랍 국가들은 분열되어 사우디, 이집트 등 일부 국가들은 다국적군에 합류하게 되었다. 지역 전체에 퍼져있는 반미 정서와 아랍 연대(Arab solidarity)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설득과 개별 국가의 전략적 이익이 고려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결정이 용인될 수 있었던 것은 아랍-이슬람의 규범 하에서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었던 데에서 비롯된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아랍-이슬람의 규범과 근대주권의 규범의 갈등 속에서 걸프 위기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었다. 사우디의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성지의 수호자라는 데에서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아왔던 사우디의 특성 상, 미군이 사우디 영토에 군사를 배치하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같은 걸프 국가인 쿠웨이트가 이라크에게 쫓겨 사우디에 망명정부를 세운 상황에서, 사담 후세인에 대한 반감과 위협인식은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

해 강하게 나타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의 정체성을 강화시켰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교도와 연합하여 같은 무슬림 국가에 대항하는 것은 쉽게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는 성지 보호를 위해서는 이교도의 개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올라마들의 파트와(*fatwa*)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었다.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와 아랍-이슬람 규범의 재해석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다국적군 파병을 승인할 수 있었다면, 이집트에서는 다국적군 합류가 국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슬람세계를 수호하는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오래 전부터 독립적인 정체성을 강화해 왔던 이집트는 한때는 지역패권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이스라엘과의 단독 평화조약 체결로 오랫동안 아랍 세계에서 방출되었던 바 있다. 따라서 이집트는 걸프 위기를 통해 다시 지역패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후세인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슬람세계의 일원으로서 여전히 이집트는 공공연하게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지역의 규범 밖에서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국적군 합류는 결코 이라크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이슬람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요르단은 여러 가지 안보적 위협과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군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끝까지 아랍 솔루션을 고수했다. 이러한 요르단의 결정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요르단의 특성과 미국의 개입이라는 상황이 결합되어 아랍-이슬람 규범이 강하게 작동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르단은 처음부터 친 이라크의 입장에 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국제적 흐름에 맞춰 이라크의 행동을 비난하였는데, 이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자리 잡은 주권 규범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어떤 군사적 개입도 용인하지 않는 동시에, 아랍의 틀 안에서 걸프전과 관련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요르단의 노력은 주권 규범과 아랍-이슬람의 규범이 조응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중동의 국제정치는 흔히 만성적인 불안정성으로 표현된다. 이 지역에서는 초국가적 정체성 경쟁, 내전, 테러리즘, 종교·종파·부족 간의 지속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마치 데자뷔처럼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의 문제들은 주로 행위자와 갈등의 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어 기존의 국제정치학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리고 이는 흔히 ‘중동 예외주의(Middle East Exceptionalism)’이라는 표현을 통해 단적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이슬람’은 그러한 예외성을 대표하는 키워드였다.

이러한 설명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종교로서 이슬람의 폭력적 성격이 중동 지역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야기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장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동의 모든 정치적 문제들을 이슬람의 문제로 치환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중동의 정치현상들을 예외적, 일탈적 사례로 취급하고 오히려 서구의 역사와 경험을 몰역사적인 메타서사로 간주하면서 중동의 예외성을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서구의 시간과 역사를 기반으로 고안된 ‘전 지구적 구상(global designs)’이 시간과 장소의 토양 위에서 형성된 ‘지역의 역사(local history)’에 강제되어 온 것이다.¹⁷³⁾

따라서 이러한 서구 중심의 국제정치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기존의 프레임워크에서 간과하거나 왜곡해 온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¹⁷⁴⁾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서구의 국제정치 이론은 중동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데 어떤 모순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중동 국제정치는 주권국가체제를 당연의 전제로 하는 이

173) 김은중, “탈식민성과 라틴아메리카연구,” 『이베로아메리카』 제 11권 2호. (2009), pp. 157.

174) Ronald Bleiker, "Forget IR theory," *Alternatives*, Vol. 22, No. 1, (1997).

론 틀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역에서는 근대국제 질서와는 다른 이슬람 질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며, 근대국제체제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부과되어 긴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영위되어 왔을 뿐이다. 따라서 중동의 근대체제는 여전히 과거의 이슬람 질서의 유산 속에서 ‘불완전하게’ 작동하였으며, 내부의 국가행위자들 역시 전형적인 근대국가의 행동과는 다른 양태를 보였다. 이에 본 논문은 일반적인 근대 국제체제와는 다른 중동 지역체제의 특성을 역사적 연속성과 단절 속에서 고찰해보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 즉 걸프위기의 지역정치를 통해 다시 규명해 보이고자 했다.

전통적인 이슬람 세계의 질서는 간단히 말해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의해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는 국가(*dawla*)와 이슬람 영역과 전쟁 영역으로 이분되는 위계적 국제 공간, 그리고 전쟁 영역에 대한 영구적인 전쟁과 일시적인 평화만을 허용하는 지하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이슬람 국가 내부의 질서 역시 종교에 기초를 둔 개인 및 공동체의 분류 및 위계, 그리고 부족·직업·종교적 차이의 유지 및 자율성 부여로 요약될 수 있다. 동시에 이슬람 세계 내의 모든 개인과 사회는 '정치적인' 경계선을 넘어 하나의 유기체적 단일성을 유지했다.

약 18세기까지 유지되어 오던 이러한 이슬람 질서의 기본 틀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팽창으로 점차 변형되게 된다. 그리고 여러 변화들 중 이슬람 질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평등’의 관념이었다. 우선 외부적으로는 서구의 발전과 팽창으로, 우월한 힘을 통해 유지되었던 위계성이 깨어져, 오스만 제국은 서구의 국제법을 수용, 이들이 중심이 되는 국제체제에 객체로 편입되게 되었다. 한편 국내적 차원에서 ‘평등’은 비 무슬림, 특히 기독교도의 상대적인 지위의 상승과 서구의 후원을 통한 독립으로 이어져 제국의 해체를 가속화시켰으며, 무슬림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몇 세기 동안 이어진 평화로운 공존이 깨어지고, 종교적 갈등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실상 발칸의 대부분의 지역이 개별 민족국가로 독립한 이후 오스만 제국은 제국의 생존을 위해 점차 투르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게 되었고, 이 때 여전히 일군의 사회들로 남아있던 아랍 지역 역시

무슬림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넘어 아랍민족의 정체성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같은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오스만 인으로서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아랍 지역은 다른 이교도 지역에 비해 민족주의를 훨씬 늦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은 1차 세계대전까지도 별다른 힘을 갖지 못했으나,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거쳐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아랍 지역은 유럽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근대 국제체제를 주입받았다. 그러나 이때 건설된 근대 국가들은 서구의 국가에 비해 상당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 이 국가들의 경계선은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공동체들 간의 구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서구의 이해관계에 의해 획정되었던 데다가, 이 지역 전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슬람과 아랍 외에 개별 국가의 정치적 권위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기제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내부적 응집력과 대내적 권위가 매우 부족한 영토국가(territorial state) 상태에 머물렀으며, 아랍 공동체 전체 혹은 이슬람 움마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치적 운동이 막대한 힘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 간의 관계 역시 근대 주권의 규범에 따라 형성되지 못했다. 근대적 질서의 작동은 각각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전제로 하나, 여기서는 그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아랍주의와 이슬람은 근대국제체제의 조직원리를 뒤엎고, 새로운 조직원리를 조직하려는 시도를 정당화해주었다. 민족 공동체와 일치하지 않은 정치적 경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단 중동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비서구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조건이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 중동을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만드는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아랍과 이슬람은 단순히 행위자의 정체성으로서가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가지는 의의는 이슬람이라는 변수를 재조명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서구 국제정치이론의 핵심적인 명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가운데 정체성 혹은 관념으로서 이슬람 변수

를 활용하고자 했던 반면, 이슬람은 거기서 더 나아가 전통적인 정치단위와 질서를 규정하는 원칙으로 기능했던 면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동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많은 갈등과 분쟁의 근본 원인은 종교 자체의 폭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원칙에 의해 조직되었던 과거의 질서가 폭력적으로 대체된 데에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영문 단행본

- Al-Barghouti, Tamim. 2008. *The Umma and the Dawla: The nation-state and the Arab Middle East*. London: Pluto Press.
- Ayoob, Muhammad. 1995. *The third world security predicament: State making, regional conflict,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Boulder : Lynne Rienner publishers.
- Berkes, Niyazi. 1998. *The Development of Secularism in Turkey*. New York : Routledge.
- Brand, Laurie A. 1994. *Jordan's Inter-Arab Relations: The Political Economy of Alliance Maki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ush, George and Brent Scowcroft. 1998. *A world transformed*. New York : Knopf.
- Campbell, David. 1992.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1993. *Politics without principle: sovereignty, ethics, and the narratives of the Gulf War*.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 Cleveland, William L. and Martin Bunton. 2009. *A History of the Modern Middle East*, Boulder, Colo: Westview Press.
- Dilip, Hiro. 1992. *Desert Shield to Desert Storm: The Second Gulf War*. New York: Routledge.
- Eickelman, Dale F. and James Piscatori. 1990. *Muslim travellers : pilgrimage, migration,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 London

- : Routledge.
- Freedman, Lawrence and Efraim Karsh. 1993. *The Gulf conflict, 1990-1991: Diplomacy and war in the new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leisher, Cornell. 1986. *Bureaucrat and Intellectual in the Ottoman Empire: The Historian Mustafa Âli (1541-160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ladstone, William Ewart. 1876. *Bulgarian horrors and the question of the East*. Whitefish, MT : Kessinger Publishing.
- Graham-Brown, Sarah. 1999. *Sanctioning Saddam: The Politics of Intervention in Iraq*. London, New York: I. B. Tauris Publisher, 1999.
- Halliday, Fred. 2005. *The Middle Ea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ower, Politics and Ide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ioğlu Şükrü. 2008. *A Brief History of the Late Ottoman Empire* (Princeton :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zem, Beblawi and Giacomo Luciani (eds.). 1987. *The Rentier State*. London: Croom Helm.
- Hinnebusch, Raymond A. and Anoushiravan Ehteshami. 2002. *The Foreign Policies of Middle East States*. Boulder, Colo: Lynne Rienner Publishers.
-
- _____. 2014. *The Foreign Policies of Middle East States*, 2nd. Boulder, Colorado : Lynne Rienner Publishers.
- Hobden, Stephen. 1998.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ical Sociology*. London, New York : Routledge.
- Hobden, Stephen and John M. Hobson. 2002. *Historical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K,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dgson, Marshall. 1974. *The Venture of Islam 3: The Gunpowder Empires and Modern Time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dson, Michael C. 1977. *Arab Politics: The Search for Legitim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Inalick, Halil. 1994. *The Ottoman Empire : the classical age, 1300-1600*. London : Phoenix.
- Imber, Colin. 1997. *Ebu's-su'ud : the Islamic legal tradition*.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 Jackson, Peter and Laurence Lockhart. 1986. *The Timurid and Safavid perio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ohane, Dan. 1994.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he Gulf Conflict, 1990-1991*.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 Kerr, Malcolm H. 1971. *The Arab Cold War: Gamal Abd al-Nasir and His Rivals, 158-1970,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hadduri, Majid and Ghareeb, Edmund. 2001. *War in the Gulf, 1990-91 : The Iraq-Kuwait Conflict and Its Implic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halidi, Rashid. 1991. *The origins of Arab nat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hater, Akram Fouad. 2010. *Sources in the History of the Modern Middle East*. Boston: Cengage Learning.
- Kieser, Hans-Lukas. 2010. *Nearest East: American Millenialism and Mission to the Middle Eas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0.
- Lenore, Martin G. 1999. *New Frontiers in Middle East Security*. New York: St. Martin Press.
- MacFie, A. L. 1996. *The Eastern Question, 1774-1924*,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Makdisi, Ussama. 2008. *Artillery of Heaven: American Missionaries and the Failed Conversion of the Middle East*.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Murphey, Rhoads. 1999. *Ottoman Warfare 1500-1700*. New Brunswick, N.J. : Rutgers University Press.
- Lynch, Marc. 1999. *State interests and public spheres :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Jordan's identit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ofield, Richard. 1991. *Kuwait and Iraq: Historical Claims and Territorial Disputes*.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Streusand, Douglas E. 2011. *Islamic Gunpowder Empires: Ottomans, Safavids, and Mughals*, Boulder, Colo: Westview Press.
- Tareq, Ismael Y. and Jacqueline S. Ismael. 1994. *The Gulf War and the new world order: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 Tibi, Bassam. 1992. *Conflict and War in the Middle East, 1967-91: Regional Dynamic and the Superpower*. London: Palgrave Macmillan.
-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2. 영문 출판물

- Amirahmadi, Hooshang. 1993. "Global Restructuring, the Persian Gulf War and the United States Quest for Leadership," in Hooshang Amirahmadi, *The United States and the Middle East*. Albany, 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arnett, Michael N. 1996(a). "Identity and Alliances in the Middle East,"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nnison, Amira K. 2009. "The Ottoman Empire and its Prece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English School Theory," in Barry Buzan and Ana Gonzalez-Pelaez (eds.),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Middle East : English school theory at the regional level*.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Brand, Laurie A. 2003. In Search of Budget Security: Jordanian Foreign Policy," in L. Carl Brown (ed.), *Diplomacy in the Middle Eas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Regional and Outside Powers*. London: I.B. Tauris.
- Bresheeth, Haim. 1991. "The New World Order," in Haim Bresheet and Nora Yuval-Davis (eds.), *The Gulf War and the New World Order*. London: Zed.
- Ehteshami, Anoushiravan and Raymond Hinnebusch. 2013. "Foreign Policymaking in the Middle East: Complex Realism" in Louise Fawcett (e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Haseeb, D. and M. S. Rouchdy. 1991. "Egypt's speculations in the Gulf crisis: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the opposition movements in Haim Bresheet and Nora Yuval-Davis (eds.), *The Gulf War and the New World Order*. London: Zed.
- Hudson, Michael C. 2004. "American Hegemony and the Changing Terrain of Middle East International Relations," in Bassel F. Salloukh and Rex Brynen, (eds.). *Persistent Permeability? Regionalism, Localism, and Globalization in the Middle East*. London: Ashgate Publishing Limited.
- Korany, Bahgat. 1991. "Defending the Faith: The Foreign Policy of

- Saudi Arabia," in Bahgat Korany and Ali E. Hillal Dessouki (eds.). *The foreign policies of Arab States: The challenge of change*. Boulder : Westview Press.
- Legrenzi, Matteo. 2015. "New dimensions of security and regionalism in the Middle Ea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a Changing Middle East, *POMEPS STUDIES*, Vol. 16 (September 17).
- Noble, Paul. 1991. "The Arab system: pressures,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in Bahgat Korany and Ali E. Hillal Dessouki (eds.), *The foreign policies of Arab States*. Boulder, Colo: Westview Press.
- Salloukh, Bassel F. 2015. "Overlapping contests and Middle Ea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eturn of the Weak Arab Stat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a Changing Middle East, *POMEPS STUDIES*, Vol. 16 (September 17).
- Telhami, Shibley. 1991. "Middle East Politics in the Post-Cold War Era" in George W. Breslauer, Barry Kreisler, and Benjamin Ward, (eds.), *Beyond the Cold War: Conflict and Cooperation in the Third World*. Berkeley, Calif: IIS.
- Tibi, Bassam. 1999. "From Pan-Arabism to the Community of Sovereign Arab States: Redefining the Arab and Arabism in the Aftermath of the Second Gulf War," in Michael C. Hudson (ed.), *Middle East Dilemma: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Arab Integration*. London: I.B.Tauris.
- Yurdusev, A. Nuri. 2009. "The Middle East Encounter with the Expansion of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in Barry Buzan and Ana Gonzalez-Pelaez,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Middle East*.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3. 영문 논문

- Abu Manneh, Butrus. 1994. "The Islamic Roots of the Gülhane Rescript," *Die Welt des Islams*, Vol. 34, No. 2.
- Ayoob, Mohammed. 2002. "Inequality and Theoriz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ase for Subaltern Realism,"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4, No. 3 (Autumn).
- Barnett, Michael N. 1996(b). "Regional Security after the Gulf Wa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1, No. 4 (Winter).
- Bilgin, Pinar. 2004. "Whose 'Middle East'? Geopolitical inventions and practices of securit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8, No. 1.
- Bleiker, Ronald. 1997. "Forget IR theory." *Alternatives*. Vol. 22, No. 1.
- Bsoul, Ahmed-Labeeb. 2007.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Islam." *Digest of Middle East Studies*. Vol. 16. No. 2.
- David, Steven R. 1991. "Explaining Third World Alignment," *World Politics*. Vol. 43, No. 2.
- Davison, Roderic H. 1954. "Turkish Attitudes Concerning Christian-Muslim Equality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59, No. 4 (July).
- Gause III, Gregory. 1998. "Systemic Approaches to Middle East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 (Spring).
- Harknett, Richard J and Jeffrey A. VanDenBerg. 1997. "Alignment theory and interrelated threats: Jordan and the Persian Gulf crisis." *Security Studies*, Vol. 6, No. 3 (Spring).
- Heradstveit, David and G. Matthew Bonham. 1996. "Attribution Theory and Arab Images of the Gulf War," *Political Psychology*. Vol. 17, No. 2 (June).

- Khadduri, Majid. 1956. "Islam and the modern law of na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0, No.2.
- Kedourie, Elie. 1987. "The nation-state in the Middle East." *The Jerusalem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9, No. 3.
- Lesch, Ann M. 1991. "Contrasting Reactions to the Persian Gulf Crisis: Egypt, Syrai, Jordan, and the Palestinians," *Middle East Journal*, Vol. 45 (Winter).
- Reed, Stanley. 1990. "Jordan and the Gulf Crisis". *Foreign Affairs*. Vol. 69, No. 5 (Winter).
- Salamé, Ghassan, 1994. "The Middle East: elusive security, indefinable region." *Security Dialogue*, Vol. 25, No. 1.
- Springborg, Robert. 1990. "Origins of the Gulf Crisi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4 (December).
- Telhami, Shibley. 1993. "Arab Public Opinion and the Gulf Wa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8, No. 3 (Autumn).
- Teti, Andrea. 2007. "Bridging the gap: IR, Middle East Studies and the disciplinary politics of the area studies controvers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3, No. 1 (March).
- Valbjørn, Mortan. 2003. "The Meeting of the Twain-Bridging the Gap between Middle East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38, No. 2 (June).
- _____. 2004. "Toward a 'Mesopotamian Turn': Disciplinarity and the Study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Journal of Mediterranean Studies*, Vol. 14, No. 1-2.
- Yezid Sayigh. 1991. "The Gulf crisis: why the Arab regional order failed." *International Affairs*, Vol. 67, No. 3 (July).

4. 국문 단행본

- 히데도, 기다. 오정석 역. 2002. 『THE GULF WAR 걸프전쟁: 역사적 전개와 전쟁수행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연경문화사.
- 부잔, 베리 & 레네 한센, 신옥희 외 옮김. 2010. 『국제안보론 : 국제안보 연구의 형성과 발전』. 서울: 을유문화사.
- 와타나베 아키오(渡辺昭夫). 권호연 옮김. 1992. 『국제정치이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79. 82. 84.
- 이용희. 2013. 『일반국제정치학 (상)』 서울: 이조.
- 전재성. 2011.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서울: EAI.
- 정상률. 2013. 『이슬람국가론과 지대국가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 정수일. 2004. 『이슬람문명』. 서울: 창작과비평사.
- 최성권. 2011. 『중동의 재조명: 국제정치』. 파주: 한울아카데미.
- 쿼터트, 도널드. 이은정 옮김. 2008. 『오스만제국사: 적응과 변화의 긴 여정, 1700~1922』. 파주: 사계절.
- 프롬킨, 데이비드. 이순호 역. 2015. 『현대 중동의 탄생』. 서울: 갈라파고스.
- 호지슨, 마셜. 에드워드 버크 3세 역음. 이은정 옮김. 2006. 『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유럽, 이슬람, 세계사 다시 보기』. 파주: 사계절.
- 후라니, 앨버트. 2010. 김정명, 홍미정 옮김. 『아랍인의 역사』. 서울: 심산.
- 헤스, 게리 R. 임윤갑 역. 2008. 『전쟁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 서울: 북코리아. pp. 220. pp. 239.

5. 국문 논문

- 김병문. 2011. “걸프전시 요르단의 외교정책: 전균형(Omnibalancing)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Vol. 41, No. 3.
- 김은중. 2009. “탈식민성과 라틴아메리카연구.” 『이베로아메리카』. 제 11

권 2호.

이은정(Eunjeong Yi). 2013. “샤리아와 카눈 사이: 오스만 법 체제의 운용과 그 변화.” 『동양사학연구』, Vol. 123.

이은정(Lee, Eun-jung). 2013. “다종교·다민족·다문화’적인 오스만제국의 통치 전략.” 『역사학보』, Vol. 217.

장인성. 2008.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을 찾아서-방법론적 성찰.” 『세계정치』, Vol. 10.

전재성. 1997. “[서평]국가안보와 문화: 국제정치에 있어서 규범과 정체성.” 전략연구.

전재성. 2012. “국제정치의 복합조직원리론으로 분석하는 남북관계.” 『세계정치』, Vol. 16.

6. 신문 자료

『한겨레』, “아랍권서 눈총받는 쿠웨이트 왕가”, 1990년 8월 7일. 6면.

『한겨레』, “아랍권, 이라크 제재 이견”, 1990년 8월 12일. 1면.

『한겨레』, “손발 안맞는 사우디파병 아랍군,” 1990년 9월 7일. 6면.

7. 인터넷 자료

Cowell, Alan. 1991. "Confrontation in the Gulf: With a Sense of Foreboding, Jordan Puts Troops on Alert." *The New York Times*. (January 14)
<http://www.nytimes.com/1991/01/14/world/confrontation-in-the-gulf-with-a-sense-of-foreboding-jordan-puts-troops-on-alert.html> (검색일: 2016년 11월 16일)

Draper, Theodore H. 1992. "The Gulf War Reconsidered,"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January 16).

<http://www.nybooks.com/articles/1992/01/16/the-gulf-war-reconsidered-2/> (검색일: 2016년 11월 26일)

Abstract

Rethinking of the Gulf Crisis : Historical Approach to Islamic World Order

Kim, Gahe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1990-1991 Persian Gulf War, being considered as a beginning of the "New World Order" under the post Cold War era, has also been evaluated as a turning point that has transformed the traditional organizing principle into the full-fledged modern international politics at the regional level. Middle Eastern regional order, previously defined by pan-Arabism or pan-Islamism, was swept away by the Iraq's invasion of Kuwait and Arab States' robust military response to Iraq. From that time the Arab states have finally strengthened their individual identities and interests.

In such narratives, however, the effort to "Arab solution" that had continued until US involvement in the conflict, as well

as the Jordanian decision to refuse to join US-led military coalition in spite of economic and military threats have acquir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he decision of other Arab states in the anti-Iraq coalition has neither been explained adequately.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these limitations are fundamentally attributed to the assumption of We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at presumes the state as a rational actor and the sovereign state system to be composed of those states. Historically speaking, modern international system, which was arbitrarily imposed by Western imperialism, has been operated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in this region at the expense of a pre-existing Islamic world order. Thus the Middle Eastern international system still works in heritage of Islamic order, and states' behavior in that system also differs from the typical behavior of modern "nation-states". Nevertheless, the existing discourses explaining the regional politics in the time of Gulf crisis have overlooked the systemic characteristics of Middle East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ave limitation in explaining the meaning and context of the event, and individual state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n this context, this dissertation has two main objectives. First, it aims to study how the traits of Middle Eastern regional system, being distinguished from those of modern international system, are reflected in historical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Second, it attempts to reconstruct the dynamics of regional politics with a focus on the foreign policy of Saudi Arabia, Egypt and Jordan at the time of Gulf Crisis.

Since the birth of Umma in 624, the Islamic world had maintained the discrete international system that apart from other regions in terms of the representations and ideas of

international space, modes of existence of unit and regulating norms among the units. Yet the system gradually became disintegrated through the 18, 19th centuries, and a modern international system originated in Europe was established in the region.

The modern states of the Middle East which were born at that time remain a territorial states, not a nation-states, lacking in sovereignty. Also patterns of their relations have not been purely determined by the norm of sovereignty. Rather, Arabism and Islam have operated as norms that regulate state behavior while serving as state identities in the Middle East. Not only were Arab states constrained to act as a part of the Arab and Umma, but to justified the "national interests" under the Arab-Islamic norm.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of the three states could be understood by adopting such explanations. Interpreting Iraq's invasion under the Arab-Islamic norm, their decision whether or not to join the multinational coalition was an outcome reflecting efforts in reconstructing their security and interests.

Keywords : the Gulf Crisis, Middle East International Relations, Islamic World Order, Middle Eastern Regional System, Arab-Islamic Norms

Student Number : 2014-21063